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FIFA U-20 WORLD CUP KOREA REPUBLIC 2017

5.20. ~ 6.11.

열정을
깨워라
Trigger the Fever™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 경기 일정	경기일 (연말예대)	05월 22일 (월)	06월 25일 (목)	05월 27일 (토)	06월 01일 (목)
첫 번째경기 (17:00~)		에르도르:미국	에르도르:사우디아라비아	포르투갈:이란	B조2위:F조2위 (06:30~)
두 번째경기 (20:00~)		사우디아라비아:캐나다	세네갈:미국	우루과이:남아공	F조1위:E조2위

티켓 판매	1등석		2등석		FEVER
	성인 (만16세~)	유소년 (만4~15세)	성인 (만16세~)	유소년 (만4~15세)	
예산	₩20,000	₩10,000	₩15,000	₩7,000	₩10,000
16강	₩30,000	₩13,000	₩23,000	₩10,000	₩15,000

구매방법 : 인터넷/모바일(kr.FIFA.com/u20ticket), 콜센터(☎1544-1555)
 할인혜택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문화누리카드:50%, 단체(11명이상):30%, 4~10인:15%

서포터즈 모집	모집기간	3. 20(월) ~ 4. 24(월)
참여혜택	응원용품, 간식, 자원봉사시간 등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1365자원봉사포털 "개인봉사참여란" 이메일 접수 : kong3784@korea.kr (인천시청 홈페이지:양식다운) 방문 접수 : 인천시청 U-20 월드컵추진단	
문의처	인천시 U-20 월드컵추진단(☎440-1537)/인천시청 본관(213호)	

FIFA Partners



FIFA.com FIFA U-20



04

APRIL

네 번째 길
 외길 인생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HOST CITY



굴업도 - 개머리 언덕
33×77(cm) oil on canvas 2016

슬프지만 아름다운 섬, 굴업도

고된 일로 허리가 휘는 가난한 사람들 섬 굴업도.

발아래 사방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 그 위 아른거리는 작은 섬들,
해풍에 흔들리는 개머리 초원 갈대, 가녀린 아낙네 목덜미를 닮은
'목기미' 해변, 구석구석 아름다운 섬.

산등성이 초원 해풍으로 나를 씻고, 밤하늘 은하수 이불 삼아
꿈속을 여행하는 섬.

태곳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길 바라며...



네 번째 길;
외길 인생

- 06_화보 봄맞이 08_인천 사람 화교 이야기 16_시민을 위한 소리 TBN 인천교통방송
- 20_인생 명장 철도 동력차 전기 정비 김용근 명장 24_인천 길 인천기상대 28_테이스티 로드 인천 중구
- 34_그린 인천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36_드론 찰칵, 달리 본다 송의동 전도관 일대 40_정책사용설명서 보육 지원 사업
- 42_박물관 이야기 기증 유물 44_문화 캘린더 빅마마 신연아의 <그대와 나> 콘서트 외
- 46_시정 뉴스 인천과 중국, 변함없는 우정 확인하다 외 49_이미지 뉴스 소래포구 50_의정 뉴스 청년정책연구회 출범 및 원탁회의 개최 외
- 52_인천의 생물 이야기 저어새 53_컬러링 인천 연수동 벚꽃로
- 54_Info Box '2040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외 58_모닝 커피 한잔 59_몽(夢)땅 인천 골목



고제민 작가 인천 출생(1960), 서울예술고, 덕성여대 서양화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현) 인천영화관광경영고 재직, 한국미술협회 회원, 개인전 6회, 부스전 5회, 단체전 및 해외전 다수,
'엄마가 된 바다'(2015) 「인천의 항구와 섬」(2013) 출간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
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
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 통통. 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flyic)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city)
웨이보(www.weibo.com/incheon)

인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께서 120미추출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궁금할 땐 언제나 120미추출콜센터 (032)120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구간 연장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역까지 운행됐던 서울지하철 7호선은 서구 석남동까지 2개역을 신설하면서 연장됩니다. 인천 구간은 인천 부평구 청천에서 인천 서구 석남까지로, 지난 2014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0년 10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G타워 전망대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G타워 전망대에 있는 홍보관은 33층에 있으며,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하늘정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서울 한정동에서 소래포구 가는 대중교통을 문의드립니다.

소래포구는 합정역에서 1302번 버스 승차 후 → 소래한라이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거나, 합정역에서 1301번 버스 승차 후 → 청능로사거리에서 20번 버스 승차 → 소래포구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미도에 놀이공원이 있나요? 개장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월미도에는 월미테마파크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꼭! 꼭! 언제나 문을 두드리세요.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합니다.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인천시-시민사회,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다**



우리 시와 시민사회가 인천 주요 지역의 현안에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읍니다. 시와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지난달 20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인천 경실련,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인천 경총,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와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여야민정 국회토론회 개최와 대선공약화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대선공약화 촉구 ▲인천공항 추권 찾기를 위한 대국민 설득 토론회 개최 등을 함께 추진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 제도화를 위한 '인천형 협치모델 개발 연구모임'을 구성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입니다. 시는 앞으로 공항공사 지분참여, 해경부활·인천환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의: 시 소통담당관실 440-2184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추억과 행복을 선사하는
보물상자가 되길**



독자 / 이미애(55, 남구 관교동)

이미애 독자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인천에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곳곳에 소중한 추억이 많은 인천은 그녀에게 있어 '보물상자'입니다.

“학창시절, 동인천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답소도 나눴죠. 일주일에 반 이상을 동인천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끝인 했습니다. <굿모닝인천>을 읽다 보면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번 더, 추억을 회상하며 친구들과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은퇴 후 2년 전부터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그녀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굿모닝인천>은 그런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문화캘린더 면에는 다양한 문화공연 정보가 게재돼 있어 소식지가 나오면 가장 먼저 펼쳐 봐요. 제가 모르고 있던 공연들이 많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죠. 덕분에 이번 달에는 제가 좋아하는 김경호 콘서트도 예매했습니다.”

이미애 독자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굿모닝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지 안에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있어요. 때문에 인천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번 보면 매력에 푹 빠져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할 거예요.”

“소식지에 실린 동인천 사진을 보며 추억을 회상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얘기하는 것처럼, <굿모닝인천>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행복을 전하는 보물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벚꽃, 가는 동안 다 진다 동네서 즐기자

글·사진/유동현 본지 편집장

순식간에 '훅' 가는 벚꽃은 구경 날짜 잡다보면 '엔딩'이다. 그냥 일상 차림으로 혹은 근무 복장으로 동네 길가 벚꽃나무 아래 서보자. 그곳에 설국(雪國)이 있다. 인천 동네 곳곳의 벚꽃 동산들은 TV에 나오는 전국 '명소'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멀리 가면 봄은 벌써 저만큼 도망간다. 우리 동네에도 하얀 사월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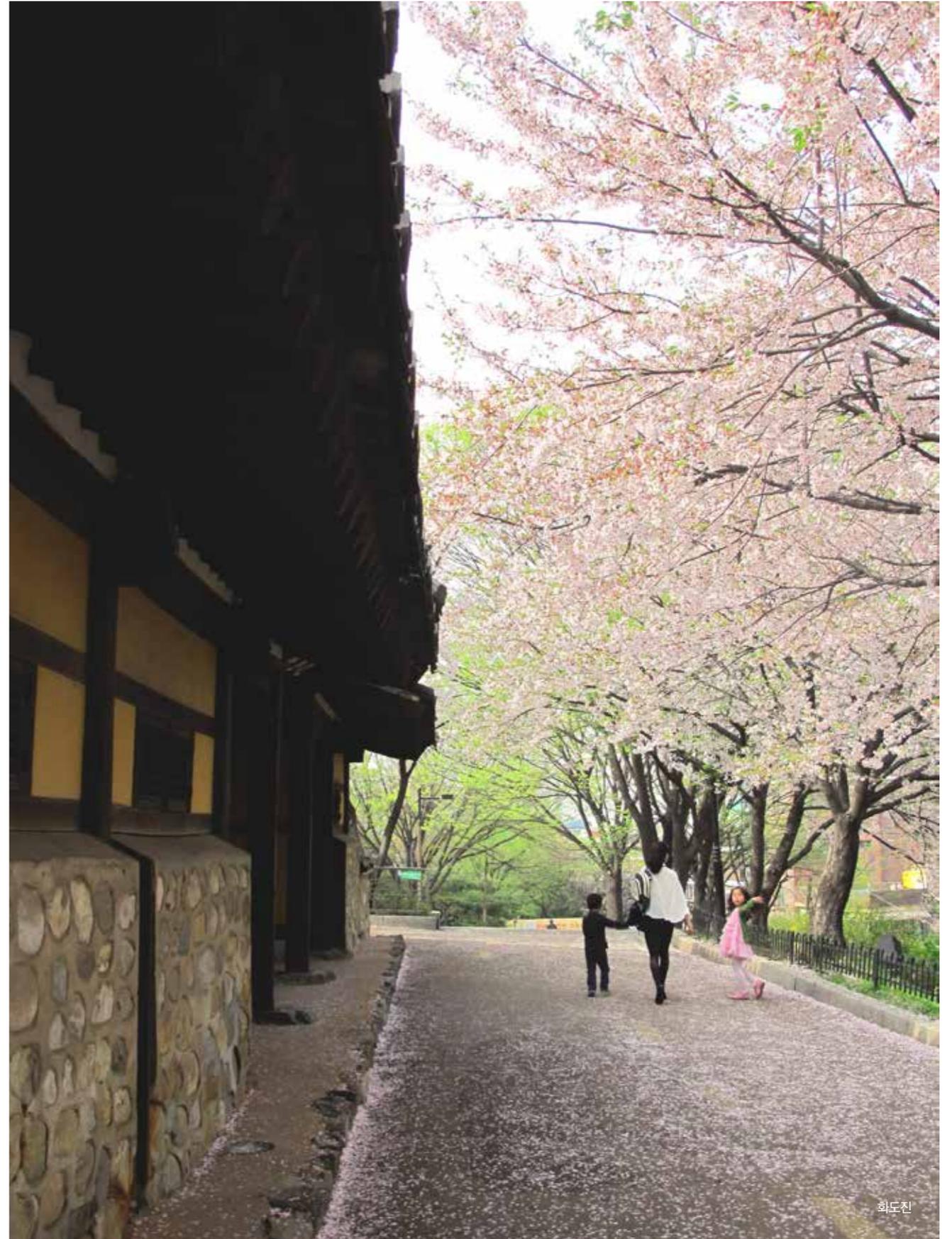
인천 벚꽃의 지존, 자유공원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왕벚꽃향, 월미산
전통 기와에 깃든 백색의 향연, 화도진
사월의 하얀 오솔길, 수봉공원
직장인들의 째짤이 벚꽃놀이, 구월동 중앙공원
고층 아파트 사이의 뱃나무 사월, 연수구 벚꽃로
두 바퀴와 함께 달리는 벚꽃터널, 인천대공원
지역민과 하얗게 도취하기, SK인천석유화학
굽이굽이 천년 벚꽃길, 강화 북문로
그리고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인천 앞바다의 하얀 섬들...



자유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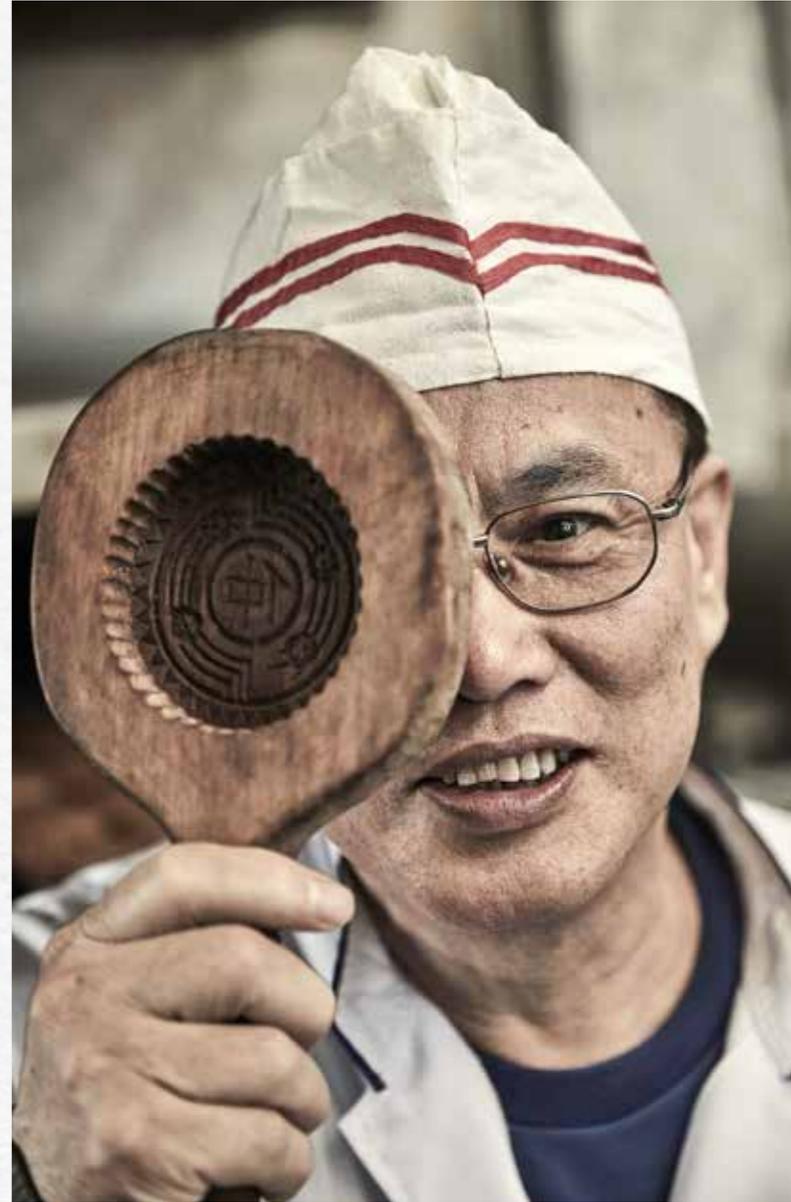
수봉산



화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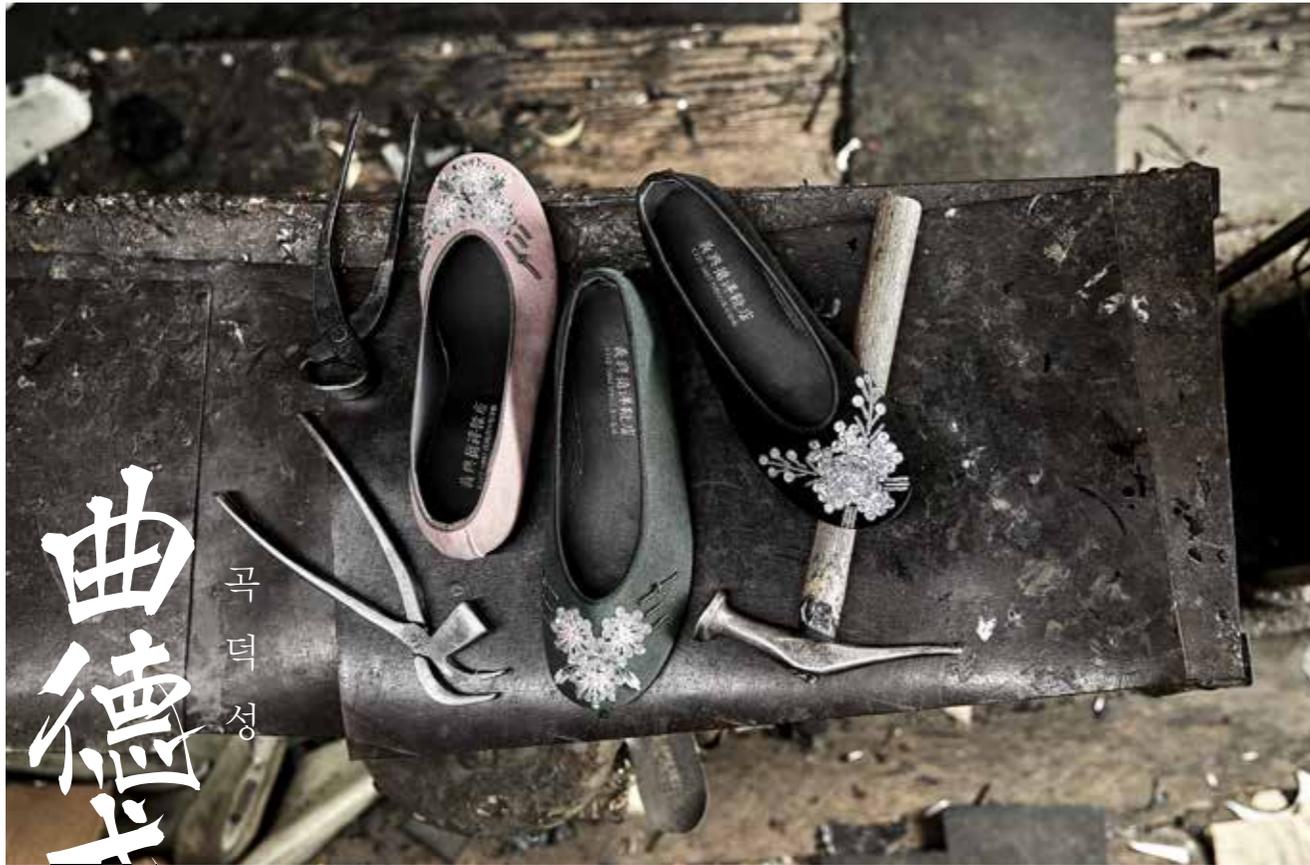
곡 씨의 솜씨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류창현 포토디렉터



붉은 꽃처럼 화려한 차이나타운. 하지만 그 안엔 굴곡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 인천의 화교는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따라 들어온 상공 화교(商工華僑)들로부터 그 역사를 시작한다. 이후 1883년 인천항이 열리면서 중국 조계(租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1920년대 산둥성 일대에 대홍수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몰려들었다. 인천은 산둥성에서 아주 가까웠다. 중국 사람들에게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너도나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하지만 세상은 낯선 이방인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화교들은 북성동과 신포동 일대에 상권을 이루며 번성했지만, 급변하는 정치 상황과 정부의 외국인 제한 정책에 힘겹게 버티다 국적을 바꾸거나 하나둘 한국을 떠났다. 그들이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옛 영광을 찾기 시작한 건, 1992년 한·중수교가 이뤄지면서부터다.

굴곡지고 파란 많은 흐름 속에서 살아온 세월. 하지만 지금 차이나타운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명소로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인천화교협회에 의하면 현재 인천에 뿌리내린 화교들은 2015년 기준 3천6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요리사, 재단사, 이발사 등 칼이나 가위를 만지는 일을 하며 대를 잇고 삶을 이었다. 솜씨. 그들은 대부분 '손을 놀려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재주'가 뛰어났다. 우리나라에서 곡(曲) 씨는 중국 당나라에서 귀화한 성씨로,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단 115명에 불과한 희귀 성씨다. 중국 본토에서 온 인천의 곡 씨들을 만났다. 우연이었을까. 그들은 구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요리를 하며, 대륙으로부터 대대손손 이어온 솜씨.를 한껏 뽐내고 있었다.



곡덕성

곡덕성

어둠 속
단단한,
망치소리

신포시장
'중국 양화점'

'양화점 대신 짜장면 집을 했으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신발을 만들던 소년은 요릿집을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중구 신포동 화교 중에서 구두를 만드는 집은 곡(曲)씨네 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빈손으로 중국 산둥성에서 인천으로 와 여덟 남매를 키웠다. 리어 카를 끌며 야채 장사를 하고 남의 집 허드렛일도 했다. 배가 고팠다. 망치를 두드리는 대신 춘장을 볶고 밀가루 반죽을 치댔다면, 최소한 배품으며 살지는 않았으리라.

신포시장 한복판 킁킁한 양화점 작업실에서 신 만드는 데 평생을 쏟아온 곡덕성(59)씨. 그가 걸어온 길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았다. 그는 열다섯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구두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의 할아버지도 바다 건너 대륙의 장터에서 신발을 만들어 팔았었다.

처음엔 구겨진 옷을 찢는 일부터 했다. 학교에서 오자마자 빨려 들어가듯 굴 속 같은 작업실에 처박혀 설 새 없이 망치질을 했다. 아버지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지 않으셨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가, 생에 처음으로 구두를 완성했다. 아버지가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와 동생이 만든 신을 살폈다. 불합격이었다. 아버지가 구두로 뺨을 무섭게 후려쳤다.



어린 그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그때의 기억은 아직 지워지지 않는 상처다.

그 후로도 오로지 일만 했다. 새벽 여섯 시에 일어나 자정이 늦도록 공구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결혼이라는 거사도 요릿집 중화루에서 부랴부랴 치르고, 신히 여행은 애관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으로 대신했다. 다음날 바로 일했다. 하루라도 쉬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뿌리가 시작된 중국 땅도 이제껏 밟은 적이 없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없다. "배울 때,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 아버지 덕이지. 엄하셨어도 사나이 중의 사나이, 멋진 분이셨어요."

'뿡뿡, 뿡' '드르륵드르륵' 망치질 소리, 구식 미싱기 돌리는 소리가 작업실 짙은 어둠 속에 울려 퍼진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숨 가쁘게 달음박질하는 속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 응급실에 실려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소년의 고운 손이 주름지도록 빤아낸 신발은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날개 돌친 듯 팔렸다. 인천 멋쟁이들은 너도나도 이집 신발을 사 신었다. 주문한 신을 품에 안으려면 꼬박 보름이 걸렸다. 소문을 듣고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모여들고, 양화점 골목도 생겨났다. 지금은 다 지난 일이다.

초라한 진열장 위 가지런히 놓인 곡 씨의 신발들은 세월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단결처럼 곱디곱다. 하지만 좁고 어두운 작업실에 자신을 가두겠다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시간은 먼지 되어 쌓이고...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수놓인 그 빛은 언젠간 퇴색되어 사그라질 것이다.



曲 家

곡
장
신



농사꾼 아버지, 칼을 잡다

차이나타운 '곡가'



온 세상이 잠든 새벽길, 다섯 살 소년은 우마차를 타고 매일 독쟁이 고개를 넘었다. 아버지는 새벽이면 용현동 집에서 송의동 깡시장까지 가 야채를 팔았다. 여덟 남매 가운데 딸 셋을 내리 낳고 처음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디든 데리고 다니셨다. 아들은 시장통에서 중국 호떡 사 먹는 재미에 눈을 비비며 길을 나섰다. 분주함이 가득한 시장 한복판, 거기서 후후 불어먹던 뜨끈한 호떡, 집으로 가던 길 부엌계 밝아 오던 새벽빛...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曲 家

곡장신(63) 씨의 할아버지는 1932년, 당시 열두 살이던 아버지를 데리고 산동성 연태에서 인천으로 왔다. 당시 중국은 사는데 넉넉지 않았다. 너도나도 먹고살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 할아버지 동네에 살던 친척들도 거의 함께 왔다. 당시 인천으로 오는 배가 하루 두 번 있던 것으로 들었다고, 그는 기억한다.

곡 씨 일가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뿌리내린 곳은 남구 용현동이었다. 당시 이곳은 중국 동네로 불릴 만큼 화교가 많았다.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은 대부분 북성동에서 상권을 이루거나 용현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가 여섯 살 때, 농사짓던 곡 씨 네는 오늘날의 송의동 공구상가가 있는 독갑다리에 중국 요릿집을 열었다.

여기에는 당시의 시대상이 엿혀 있다. 한때 번성했던 화교들은 1960년대 이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와 화폐 개혁으로 역경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곡 씨의 아버지도 농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생명처럼 여기던 땅을 팔아버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철없는 아들은 하루 세끼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 그저 좋았다.

운명이었을까. 아버지의 선택은, 훗날 곡 씨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초등학생 시절, 주방장 아저씨가 요리하는 걸 몰래 훑쳐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혼쫓아 났지요. 그 일이 쉽지 않은 걸 알기에,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라신 거죠.”

하지만 ‘요리사 곡 씨’의 인생은 이미 시작됐다. 그는 중학생 때 공화춘 다음의 중국 요릿집이었던 평화각에서 주방 일을 처음 시작하고,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닥치는 대로 일을 배웠다. 열정만큼 실력도 쌓여 갔다. 1970~80년대에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중식당을 비롯해 유명 레스토랑 주방을 책임지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연안부두의 요릿집 ‘만다린’과 차이나타운의 ‘중국성’ 등을 운영하며 유명세를 탔다. 최근에는 대만에서 요리를 배운 아들 곡승호(24) 씨와 함께 요릿집 ‘곡가(曲家)’를 열었다.

“100% 찬성하지는 않지만 기술이니까. 그래도 요즘 요리사가 인정받고 있으니 혼자 세상 살아갈 수는 있지 않겠어요?” 말은 통명스럽게 내뱉어도 눈빛엔 애정이 서려 있다. 어제의 아버지와 달리, 오늘의 아버지는 ‘곡가’의 대를 이어 요리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쓰디쓴 인생, 달콤하게 빛다

중산학교 앞
'복래춘'

曲懷玉

곡회옥

아버지는 빵과 과자를 굽고, 어머니는 차이나타운 아래 부뚜막에 내다 파셨다. 한국말을 전혀 몰랐던 어머니는 '빵' '빵'이라고 간신히 외마디 단어를 외칠 뿐이었다. 배고팠던 뱃사람들은 이게 무슨 빵이냐며 '공갈' 친다고 역정을 냈다. 우리가 아는 '공갈빵'은 그렇게 태어났다.

곡회옥(68) 씨는 차이나타운 중산학교 앞에서 중국 전통과자점 '복래춘'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말마따나 인천에서 복래춘을 모르면 간첩이다. 복래춘은 차이나타운에선 유명한 터줏대감이다. 처음엔 원조 공화춘(현 짜장면박물관) 가까이에 있다, 50여 년 전 지금의 자리로 왔다.

復來春

그 역사는 백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할아버지는 화교들이 물밀듯 몰려들던 1920년대에 산둥성 연태에서 한국으로 왔다. 중국에서 과자를 만들던 할아버지는 서울 소공동과 북창동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는 온 가족이 인천으로 왔다. 아버지는 번듯한 가게 한 칸 없이 거리에서 월병과 공갈빵을 만들어 멀리 서울까지 내다 팔았다. 아버지는 쓰디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지문이 닳도록 달콤한 과자를 빚고 또 빚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늘 밝고 여유가 넘쳤다. 곡회옥 씨가 아내 유서진(64) 씨와 부부의 연을 맺은 것도 그런 아버지 덕이다.

6·25전쟁 때 1·4후퇴로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흘러들어간 아버지는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구걸했다. 전쟁 통에 다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인데, 인심 좋은 유 씨의 친정아버지가 선뜻 쌀 두 가마니를 내놓았다. 단지 사람이 좋아 보여서 였다. 전쟁이 끝나고, 두 어르신은 서울 한복판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 기막힌 인연이었다.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녀의 혼인을 약속했다. 남다른 인연의 부부가 지켜온 전통은 아들 곡사충(35) 씨가 사대째 이어가고 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제게, 저는 아들에게 옛 방식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 연태에 가면 똑같은 방법으로 과자를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본토에서 전해 내려온 '백 년 전통'입니다."

가게 한 편에 걸린 곡 씨 집안의 가게도에 시선이 닿는다. 월병을 만들며 손맛을 이어가는 가족의 이름에만 붉은색 테두리가 선명하게 새겨 있다. 흔들림 없이 전통을 이어가는 집안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묻어난다. 그 마음을 증명하듯 세월이 자욱이 쌓인 가게엔 손때 묻은 도구들이 아직 남아 있다. 할아버지께서 월병 무늬를 찍어낼 때 사용하던 백여 년 된 나무틀은 이 집의 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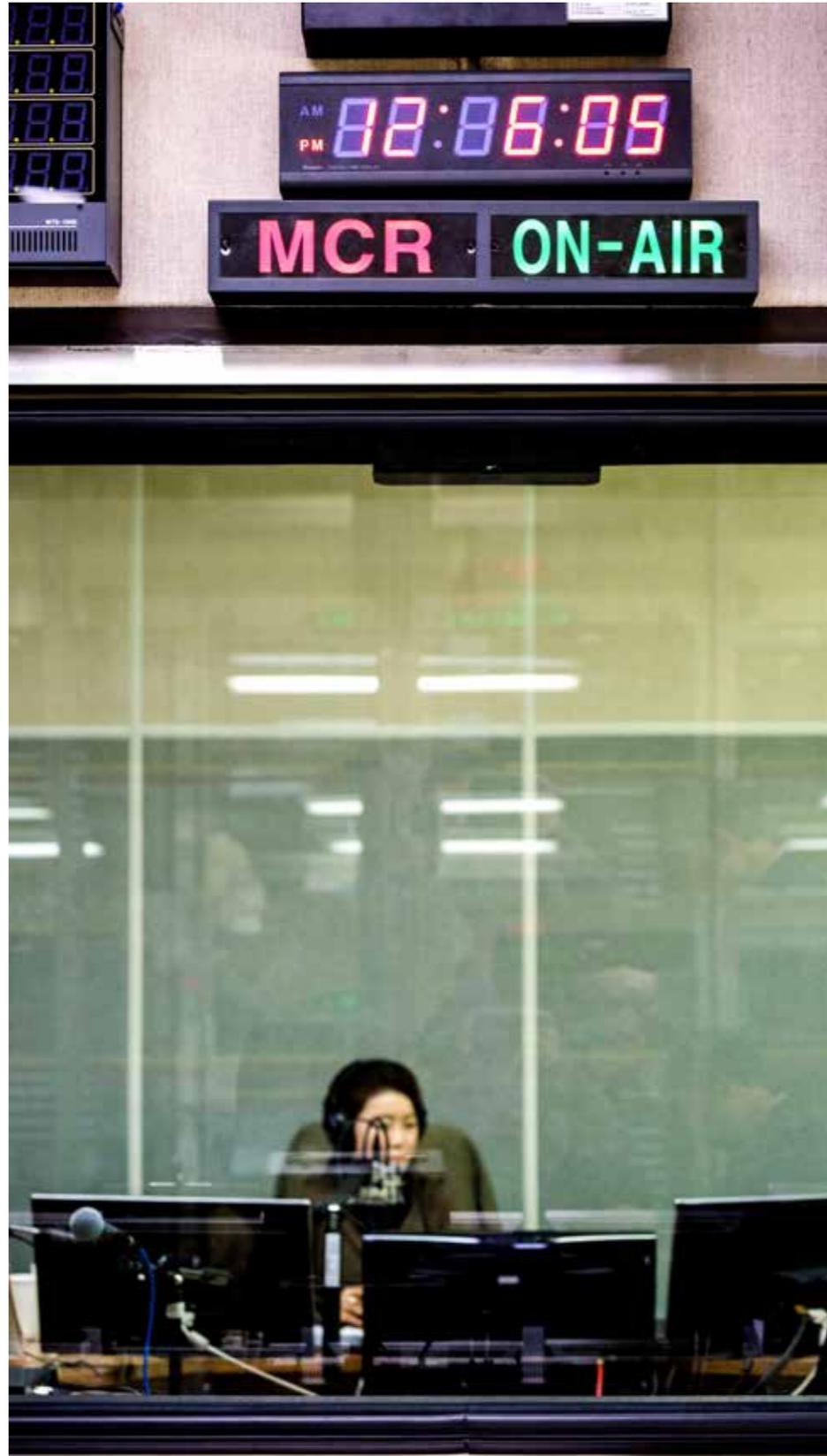
갓 구워낸 팔보월병을 한 입 베어 문다. 바삭한 반죽 속에 딱 찬 여덟 가지 견과류의 고소함이 입 안 가득 번진다. 과하게 달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맛이다. 가만히 백 년 동안 이어 온 곡 씨의 손맛을 음미해 본다.



“여기는, 옥경이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TBN 인천교통방송입니다”

4월 봄 개편을 앞두고 인천교통방송이 분주하다. 여러 프로그램이 형식과 진행을 조금씩 새 단장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이다. 하늘과 땅, 바다로 이어지는 인천의 다이내믹한 교통 환경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천교통방송을 찾았다.

글/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시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생생한 방송

“오늘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FM100.5MHz 인천교통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교통방송이 우리 옥경이의 안전도 책임진답니다.” 초청 가수 태진아 씨의 맛깔스러운 멘트에 이어진 한낮 나른함을 깨우는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 그러나 이내 볼륨이 살짝 줄더니, “사고 구간 있습니다. 남동대로 석천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 방향, 올리브사거리 30m 못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접촉 사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요...”라는 멘트가 흘러나온다. 프로그램 중에도 긴급 상황은 5분 이내 방송을 원칙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곳, 바로 지난 2001년 11월 30일 개국한 TBN 인천교통방송이다.

인천교통방송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위한 생생한 교통

상황 전달이 먼저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현재 상황만 알려주죠. 하지만, 저희 방송은 왜 길이 막히는지 소통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위험 상황도 전달하니까 궁극적으로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한 시민 안전을 위한 방송인 셈이죠.” 이지영 PD는 인천교통방송의 역할이 교통 소통에서 교통 문화, 교통 의식 함양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인천교통방송은 인천과 좀 더 밀접한 방송을 위해 서해 5도에도 중계소를 세웠다. “교통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을 전파하며 서해5도까지 아우르는 방송이라는 책임감이 크죠.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저희 방송국이 섬에 거주하는 통신원을 확보해 도서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생생한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히 먼저 전달할 수 있죠.”



◀ 황인덕 통신원
◀ 교통정보센터

(📡) 거미줄처럼 촘촘한 통신원들의 활동이 힘이 되는 방송

교통 정보의 생명은 신속 그리고 정확. 이를 위해 인천교통방송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인천기상대, 연안여객터미널, 종합터미널, 인천국제공항 등 모두 7곳에 기관방송실(POST)을 운영하고, 동인천과 연수, 계양, 부천 등 5곳에 지역방송실을 두고 있다.

이들 각 방송실과 시내 곳곳에 파견된 거미줄처럼 촘촘한 '정보원'들로부터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시각 현재의 교통 상황'이 전달된다. 누구보다 맹활약을 펼치는 이들은 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통신원. 그들이 실시간으로 마주치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전송하면 인천교통방송이 요리해 시민이 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과 함께 교통경찰관과 리포터, 일반 시민의 제보도 한몫한다.

"출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을 찾아다니면서 현장 분위기를 방송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명절과 여름휴가 때는 특별 방송에 투입돼 고속도로에서 방송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지인의 권유로 통신원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시민 편의를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2002년부터 교통통신원

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 황인덕(53) 씨는 청취자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일을 계속 할 거라고.

"처음에는 방송 멘트 작성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현장만 봐도 어떤 멘트를 해야 할지 감이 오죠." 통신원 경력 12년차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전승화(51) 씨는 정체 구간을 뚫고 시간에 맞춰 방송 현장에 도착하기 힘들 때가 가장 애가 탄다고 어려움을 털어 놓는다.

(📡)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송

방송국 2층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 인천지방경찰청의 110여 개 도로 CCTV가 한눈에 들어온다. 센터 접수 요원은 실시간 전화로 제보되는 교통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스튜디오로 전송한다. "거리를 다닐 때 표지판이나 도로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제 웬만한 길은 지도처럼 머리에 들어있죠." 전효주(35) 씨는 10년 이상 교통정보센터 제보 접수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아무래도 경찰과 교통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돼요. 경찰에서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교통 정보를 참고하죠. 저희



▲ 편유희 MC, 이지영 PD, 이보라 교통리포터(왼쪽부터)
▼ 이준희 편성국장

는 통신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실시간 상황은 저희 정보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55분 교통 정보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교통 리포터 이보라(32) 씨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전송받은 간략한 자료를 즉석에서 문장으로 만들어 방송한다. "주말에는 고속도로 위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은 정체 구간 위주, 낮에는 작업 구간 중심으로 교통 상황을 전달합니다. 교통 방송의 장점은 통신원들의 생생한 정보 외에도 촘촘하게 이뤄진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작은 일까지도 빠르고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이지요."

교통 방송은 중간에 광고가 없는 공익 방송이다. 대다수 청취자들이 교통 방송을 애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좀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중간 광고가 없습니다. 대신 '생명선을 지키자' 등과 같은 캠페인이 나가죠.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한 국민 안전을 위한 방송, 교통 약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아울러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이지요." 이준희 편성국장(46)은 새롭게 개편되는 4월부터 '보이는 라디오'도 계획하고 있다. "인천교통방송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죠. 듣는 방송에서



함께 만드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 인천교통방송이 '생활의 반려자'가 되어준다고 할까요."

인천 시민의 '발'이 빠르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송,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기분을 풀어주는 음악, 그리고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오감을 즐겁게 하는 인천교통방송의 4월 개편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소리만 들어도 전동차의 상태를 알 수 있죠”

글 /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899년, 대한민국 철도 역사는 인천으로부터 시작됐다. 118년 철도 역사를 이끌어 온 힘은 무엇일까? 승객과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수많은 손길들이 아닐까. 레일 위에서 한평생을 바쳐 온, 안전 운행의 파수꾼 전동차 전기 정비 명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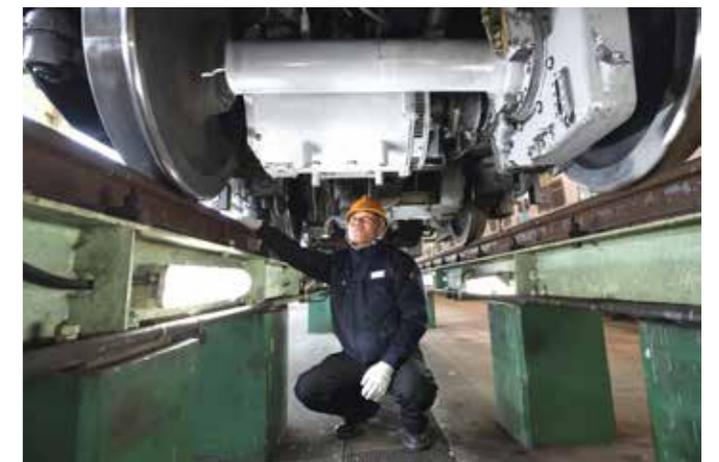
열차들의 슈바이처로 살아 온 정비 명장

“레일 위를 열심히 달리다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기차를 점검하고 때를 벗겨 내어 새 것처럼 내보낼 때의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경인전철, 서울지하철 4호선, 수인선을 달리는 전동차 검수와 정비가 이뤄지는 시흥차량사업소. 이곳에는 철도 정비에 평생을 바친 김용근(63) 명장이 있다.

꼼꼼한 점검과 정비를 위해 백 톤이 넘는 전동차가 통째로 들러 본체와 바퀴 부분으로 나뉘지고, 이어 볼트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분해된다. 쇠 위로 쇠가 달리는 열차 바퀴는 엄청난 마찰로 마모가 심해 집중 정비 대상이다. 깎아내고 기름 치고, 컴퓨터를 이용해 바퀴 축의 균형을 맞추고, 녹이 낀 부품은 세척한다. 세부 정비가 끝나면 다시 조립해 전동차의 모습을 갖추고, 시운전을 마쳐야 비로소 전동차는 다시 철로 위를 달리게 된다.

김용근 명장은 매일 매일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열차의 전기, 기계 장치 등과 씨름한다. 한 달에 닷 대 씩, 전동차가 그의 손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열차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38년째다.





한 우물을 파는 성격이 만든 외길 인생

김용근 명장은 1954년 3월 전라북도 순창에서 6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다 20대부터 인천에서 장사하는 형제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인천에서 살게 됐다. “인생 대부분을 인천에서 살았으니 인천이 고향인 셈이죠. 형님과 누님은 양키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둘째 형님의 권유로 철도 정비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형제들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우연찮게 철도 정비에 발을 들인 김 명장은 철도의 매력에 금세 빠져들었다. 어릴 적 꿈은 운동선수였지만 철도 정비를 배우면서 뿌리를 내릴 천직이라고 생각했다.

김 명장은 지난 1980년 2월 당시 철도청 서울공작장 전기차공장 정비원으로 입사해 정년퇴직한 2012년 6월 30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열차 정비 일을 했다. 비록 나이 때문에 퇴직을 했지만, 현재 (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 근무하며 여전히 손에서 열차 일을 놓지 않고 있다. “제가 한 우물만 파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전동차 수명을 35년까지 봅니다. 제가 지금 38년째 열차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시간을 철로 위에서 달린 전동차를 보면 ‘아, 나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각별한 느낌이 듭니다.”

성실과 노력이 이뤄낸 2개의 명장 타이틀

김 명장이 철도 정비에 매진하면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는 품질 관리와 품질 개선. 그는 전기 차량 작업 공정을 수작업에서 기계화 및 자동화 방식으로 변경하고, 분산 작업 방식을 통합 작업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총괄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또 한국철도공사 최초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 각종 장치별 작업 공정과 품질 개선 사례 등을 인정받아 2000년과 2005년, 2008년 대통령상을 세 차례나 받았다. 또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철도 현장에 접목·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도 발전 공로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수상했으며, 2004년에는 국가품질명장으로, 2005년에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임명됐다.

“명장이 되고나서 더 긴장하고 있어요. 명장이라는 이름에 누가 될까봐 항상 더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명장은 자부심이지, 자랑거리는 아니죠. 스스로 겸손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아들 녀석이 대학교 때 교수님이 누구 제일 존경하느냐고 물었는데, ‘아버지’라고 답했대요. 내세울 거 없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니 감격스럽고 고맙죠. 명장 타이틀보다 아들에게 인정받은 아버지로서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아픈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김 명장은 전동차를 탈 때도 보통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이나 책을 읽기보다는 열차의 소리를 민감하게 느낀다. “예전에 열차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열차를 타면 소리를 먼저 듣게 됩니다. 객차 밑에서 나는 이음이라든지, 열차가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 소리로도 열차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거든요.” 아픈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김 명장에게 있어 열차는 또 다른 자식이다. “열차 타면서 ‘아, 이걸 언제 수리했던 차인데...’ ‘아, 이 녀석을 수리하면서는 정말 많이 고생했었지’라는 기억이 떠오르죠.”

먼저 이 길을 갈고 닦아 온 선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김 명장. 하지만 그에게도 아쉬움은 있다. 철도 명장의 끈을 이어갈 후배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탓이다. 김 명장은 “118년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통틀어 철도 명장이 몇 명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답이 돌아오는 철도 분야에서 많은 후배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랄 뿐이죠.”

증기기관차부터, 디젤기관차와 전기기관차를 거쳐 KTX까지. 그 뒤안길에는 김 명장처럼 승객과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땀 흘린 수많은 기능공들의 인생이 녹아 있다.





인천기상대 내 1923년에 지은 참고 건물

인천, 내일 더 맑음

‘ALL_WAYS_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110여 년 전 항구를 열고, 철도의 역사를 시작한 인천으로부터 길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땅 길, 바닷길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하늘 길의 시작도 인천이었다. 그 길 위에 서서 인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본다. 그 네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기상 관측소이자 한때 전국을 아우르던 중앙관측대였던 인천기상대를 찾았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 류창현 포토디렉터



자유공원 아래, 기상대 마을

봄이 무르익었다. 이맘때면 가장 아름답고 싱그러운 자유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공원 가까이 있는 제물포고등학교 담장을 따라가다 보면 오르막길이 나온다. 햇살 드리운 언덕길을 따라 인천기상대에 다다른다.

있고 있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 사이, 기상대가 110여 년 동안 인천 도심과 바다를 굽어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1905년 1월 1일, 응봉산 꼭대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기상관측소가 세워졌다. 여기엔 수탈의 아픈 역사가 깃들여 있다. 바다를 품은 인천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러일전쟁을 앞둔 일본은 군사 작전에 필요한 기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랴부랴 관측소를 세웠다. 당시 이곳은 국내 13개 도시의 측후소는 물론 멀리 만주 지방의 관측소까지 아우를 정도로 기세가 강했다. 또한 일본 기상대,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와 기상 정보를 주고받을 만큼 기술력이 뛰어났다. 월미도에서 헬리콥터를 관측하기도 했다. 초대 소장으로는 일본 중앙기상대장을 지낸 기상학의 권위자 와다 유지 박사가 부임했다. 그만큼 인천측후소의 위상은 막강했다.



일제 강점기의 인천관측소



오늘, 하늘에서 본 인천기상대



회색은 맑음, 녹색은 흐림

인천의 기상대는 광복 이후까지도 중앙관상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53년 11월 서울에 중앙관상대가 세워지면서 측후소로 기능이 축소됐고, 1992년 3월 인천기상대로 승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방순태(87) 어르신은 1957년 인천측후소에 처음 들어갔다. 해군에서 통신 관련 임무를 맡은 게 인연이 됐다. 그때는 제대로 된 기상 장비가 없어 기상 관측 정보를 통신으로 받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야 했다. 그렇게 작성한 인천의 관측 정보를 서울기상대에 보내면 서울에서 다시 방송을 하는 식이었다. “지금은 장비가 좋아져서 얼마나 편해. 기상 관측과 예보도 정확해졌고. 이렇게 발달한 거 보면 그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싶어.”

지금처럼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상대 첩탐 안테나에 깃발을 올려 기상 예보를 전했다. 날씨가 맑으면 흰색, 날씨가 흐리면 녹색 깃발을 올렸다. 흰 천이 걸렸는데 비라도 올 때면 향의 전화가 빗발쳤다. 어긋난 일기 예보를 질타하는 가파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지만 인공위성, 항공기, 슈퍼컴퓨터..., 아무리 최첨단 시설로 무장한들 인간이 대자연을 온전히 예측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변하지 않은 건 하늘 뿐

“다 변했어. 나무는 그대로네. 대신 요만하던 녀석이 이렇게나 컸어. 허허.”

세월은 흘러 흘러, 많은 것이 달라졌다. 천둥 번개라도 치는 날엔 마음 졸이며 하늘을 지키던 청년은 이제 백발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아직 인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원통형의 하얀 기상대 건물은, 2013년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인천기상대의 상징이었다.

변함없는 건, 관측 노장이 있는 봉긋한 언덕까지 이어진 돌계단과 1923년 4월에 지은 창고 건물이다. 빨간 벽



1928년 쌓은 돌계단 위에서, 옛 생각에 잠긴 방순태 어르신

돌을 쌓아 올린 네덜란드 식 건축물에선 고풍이 흐른다. 건물 정면에는 우아한 아치형 문이 있고, 옆면 양쪽에는 직사각형 창문 두 개가 단출하게 나 있다. 초록 기와를 얹은 맞배지붕도 멋스럽다.

“예전에는 이 안에 손으로 쓴 기록물이 가득 쌓여 있었어. 지금은 참 좋게도 만들어놨네. 세상 좋아졌어.” 옛 창고 건물은 시청각 교육 자료가 있는 역사관으로 쓰인다. 역사·문화적으로도 가치를 인정해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평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봄 물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기상 관측소이자 한때 전국을 아우르던 중앙관상대였던 인천기상대. 지금은 비록 중심에서 멀어졌지만, 바다와 공항을 품은 인천이기에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

“안개는 비, 바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해무가 짙게 깔리면 해상 교통과 어업 활동이 위험해 지고, 통신에도 문제가 생겨 해상 자료가 잘 수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엔 관측에 더 각별히 신경 씁니다.” 인천기상대는 날씨에 민감한 섬 주민과 강화 농민들을 위해 ‘해상기상서비스’와 ‘농업기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봄 인천 날씨는 어떨까? 아침 공기만 스쳐도 그날의 날씨를 직감한다는, 정길운(60) 인천기상대장에게 물었다. “작년보다 봄이 일주일 정도 빨리 온 거 같아요. 평년 기온인 11.5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봄 물결. 그 온화한 기온이 인천의 앞날에 가득하길 바라며, 기상대 문을 나섰다.

지금은 비록 중심에서 멀어졌지만,
바다와 공항을 품은 인천이기에
인천기상대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인천기상대 내 '세계지진관측망 인천관측소'
이곳은 한국 최초의 지진관측 시발점이다.



기상대 들어가는 길목의 '기상대 슈퍼'
1976년 '공원가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오·래·된

흔히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한다. 엄마가 차려주신 것 지은 뜨끈한 쌀밥과 여러 가지 반찬이 푸짐하게 나오는 밥상 하나면 마음속까지 따뜻해진다. 늘 반겨주는 엄마처럼 언제 찾아도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밥집은 그래서 참 든든하다. 그곳엔 익숙한 맛과 편안한 분위기가 있고, 오랜 세월 쌓여온 이야기와 사연이 흐른다.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인천 중구의 오래된 밥집을 찾았다.

글 /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 최준근 자유사진가

밥집 밥집밥



백반 하나로 60여 년 이어온 소박한 밥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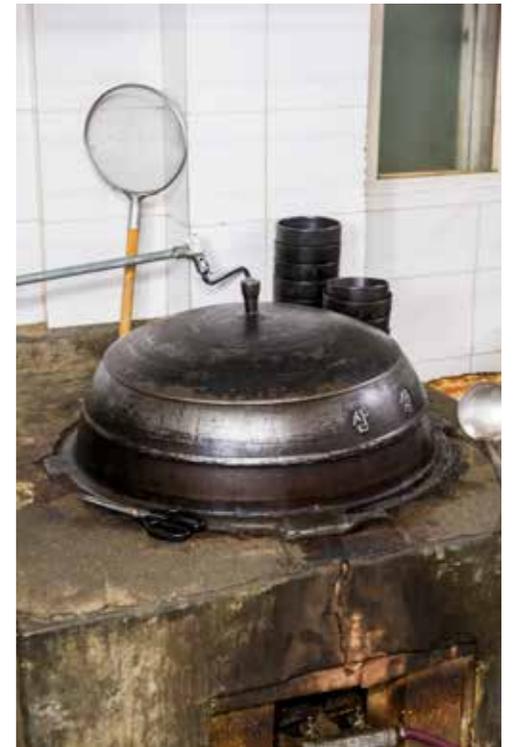
동방식당

“몇 명이에요?” 입구에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주인장 할머니가 사람 수를 먼저 묻는다. 6·25 전쟁이 끝난 후 개업해 삼대 째 영업 중인 동방식당은 60년 넘게 오로지 백반 하나로 사랑받아온 식당이다. 단일 메뉴여서 따로 주문할 필요도 없다. 인원수만 말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잠시 후 쟁반에 국과 10여 가지의 반찬, 수북하게 담은 밥 한 그릇이 올려진 백반 한 상을 가져다준다. 반찬이 정갈하고 맛이 깔끔해 금세 푹푹 그릇을 비우게 된다.

가게 한쪽에 준비된 상추, 풋고추 등 채소류와 반찬은 손님이 직접 떠다 먹는 '셀프' 메뉴인데, 먹고 싶은 만큼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 따끈한 누룽지와 스프 또는 감주도 손님들을 위한 이 집만의 정성. 집에서 차린 밥상을 받는 편안함 때문인지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붐빈다.

“반찬도 깔끔하고 맛있어서 자주 찾아요. 15년째 단골인데, 6천 원으로 이렇게 푸짐한 밥상 받아본적 있어요?” 택시 기사 김영태(55) 씨는 식사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집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밥이나 먹고 가지, 뭘 자꾸 물어봐요? 우리 집 내세울 거 없어. 오래된 단골손님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늘 고맙지. 내가 만족해야 손님도 만족하실 텐데, 난 항상 부족하게 대접하는 것 같아 맘에 걸리거든.” 한사코 인터뷰를 마다하는 주인장 할머니의 잔잔한 미소에 엄마의 따스함이 겹쳐진다.



- 📍 중구 제물량로241번길 28
- ☎ 762-2269
- 🕒 오전 5시 30분~오후 9시
- 💰 백반 6천 원
-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앞에 위치한 덕에 주차 공간도 넉넉한 편. 매번 식단이 바뀌는 점심, 저녁과 달리 아침식사는 매일 가마솥에서 끓여내는 갈비탕이 주 메뉴.



- 📍 중구 우현로49번길 7
- ☎ 766-0303
- 🕒 오전 11시~오후 9시(매월 26일 휴무)
- 📖 장어 튀김 1만2천 원(반접시 6천 원), 튀김우동 4천500원
- 🗣️ 속이 알찬 장어 튀김은 무즙이 가득 들어간 소스에 찍어먹는 맛이 일품. 튀김 가득한 우동은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를 살짝 넣어 먹으면 더욱 맛있다.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장어튀김

신신옥

60~70년대 신포시장을 지나던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리봤을지한 우동집 '신신옥'. 1958년 문을 연 신신옥은 푸짐한 우동과 별미인 장어 튀김 맛에 신포시장 명소로 자리 잡았고, 옛 사람들의 기억에도 또렷이 남아있는 명물이었다.

“항해도 신천에서 단신으로 월남한 부모님이 인천에 정착하시면서 장어 튀김과 우동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어요. 가게 이름은 아버지 고향인 신천(信川)의 ‘신’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대를 이어 가게를 지키고 있는 박진우(63) 씨가 말을 이어갔다. “1958년도에는 민물장어가 흔했대요. 지금은 민물장어가 귀해서 봉장어를 사용하지만, 당시엔 장어도 튀기고 우동도 만드는 집이 이 근처에 네 군데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집만 남았죠.”

가게 벽면 가득 붙어있는 영화 포스터에 눈길이 간다. “부모님이 가게 하실 당시 이 근처엔 애관, 미림, 오성, 동방, 인천, 자유극장 등 영화관이 10개 정도는 있었어요. 극장에서는 식당에 영화 포스터를 붙이면서 영화 할인권 대여섯 장을 줬는데, 어머니는 그걸 단골손님에게 나눠주시곤 했죠. 어느 순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옛 생각이 나서 옛날 포스터를 인사동까지 가서 구입해 왔죠.”

탱글탱글한 봉장어를 바삭하게 튀겨낸 장어 튀김, 부모님께 전수 받은 시원한 멸치 국물과 매끈한 면발이 조화롭던 튀김우동은 든든하게 속을 채우면서 옛 추억에 잠기기 충분했다.



- 📍 중구 신포로27번길 47
- ☎ 772-0946
- 🕒 오전 11시~오후 3시(토, 일요일 휴무)
- 📖 된장찌개백반 6천 원, 청국장 6천 원, 생선찌개백반 8천 원
- 🗣️ 손님들을 위해 일부러 밥을 눌러 누룽지를 만든다는 주인장은 손님이 몰리지 않고, 감당할 만큼만 있어야 제대로 대접할 수 있다며 점심 장사만 하고 가게 문을 닫는다.

엄마가 해준 집밥이 그리우면 찾게 되는

춘천식당

“우리 집은 된장찌개랑 청국장이 맛있어요.” 뭘 시켜 먹을까 메뉴판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맛깔스럽게 무친 아삭아삭 콩나물과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양념이 듬뿍 밴 폭 익은 무와 함께 먹는 부드러운 고등어조림은 나른한 봄날 식욕을 깨운다. 반찬만 먹어도 금세 밥 한 그릇 푹딱 비울 것 같은데, 승腾腾 떨어놓은 두부가 담긴 청국장의 깊고 담백한 맛에 숟가락이 멈추질 않는다.

“우리 가게 50년 넘었죠. 내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이랑 식당일 한 것만 해도 42년 전 일이니까. 식당 이름요? 우리 시어머니 고향 춘천을 따서 지은거래요. 시어머니가 23살 때 혼자 되셨는데, 우리 남편을

키우면서 시어머니를 모셨대요. 그 공로로 효부상도 받으셨고” 메뉴판 옆에 효부상 수상 당시의 사진이 걸려있다.

“원래 우리 식당이 아트플랫폼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옥상에서 직접 장을 담갔어요. 장 담그면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곤 했는데, 중구청 옆으로 식당을 옮긴 이후론 돌아가신 시어머니 친척이 있는 춘천에서 담근 장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가끔은 밥과 몇 가지 찬으로만 이루어진 소박한 한 끼가 그리워지곤 한다. 진정 ‘집 밥’다운 식사가 그렇다면 춘천식당을 찾아보자. 넘치는 엄마 마음처럼 푹푹 눌러 담은 밥과 정갈한 반찬이 그리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개운한 칼국수, 호로록 넘어가는 만두 맛이 일품

해안칼국수

중구청 근처 해안동의 '해안 칼국수'는 정말 집에서 엄마가 만든 칼국수 그대로다. 통통한 바지락이 들어간 멸치 국물은 어린 시절 추억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저온 숙성된 반죽을 칼로 썰어 조리하기 때문에 칼국수 한 그릇 받아보기까지 제법 시간이 소요되지만, 훌륭한 면발과 개운한 국물에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다. 칼국수만큼이나 유명한 건 바로 물만두. 칼국수 육수에 끓여내는 물만두는 보드라운 만두피 덕분에 호로록 한입에 넘어간다. 풍부한 돼지고기 맛이 입 안 가득 퍼진다. 시원하고 칼칼한 부추무침과 함께 곁들인 만두에 자꾸만 손이 간다.

“먹고살려고 칼국수 집을 시작했지. 바깥양반이 예전에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배우처럼 멋있게 생겼었는데, 생계에는 관심 없었어. 처음 가게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김경애(70) 사장님은 가게 덕분에 애들 잘 키우고, 지금은 단골 손님들과 옛날 얘기도 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70~80년대 중구가 대단했지. 명동보다 동인천과 신포동이 더 붐볐을 거야.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중구도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해.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 중구에 많잖아.”

젊은 날의 추억과 그리움을 묻어 놓은 각별한 곳, 그곳에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마음 따뜻한 엄마의 손맛이 있었다.

- 📍 중구 신포로15번길 59
- ☎ 766-0706
- 🕒 오전 9시~오후 8시(일요일은 평일보다 문을 늦게 연다)
- 📄 칼국수 4천500원, 만두 3천 원, 만두국 5천500원, 수제비 5천500원
- 🍽 신선한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게 이집 맛의 비결. 재료값은 올랐지만, 아들 또래의 남자 손님들이 밥값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을 본적이 있어 음식 가격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어깨너머로 배운 시어머니의 두부솜씨를 잇다

맛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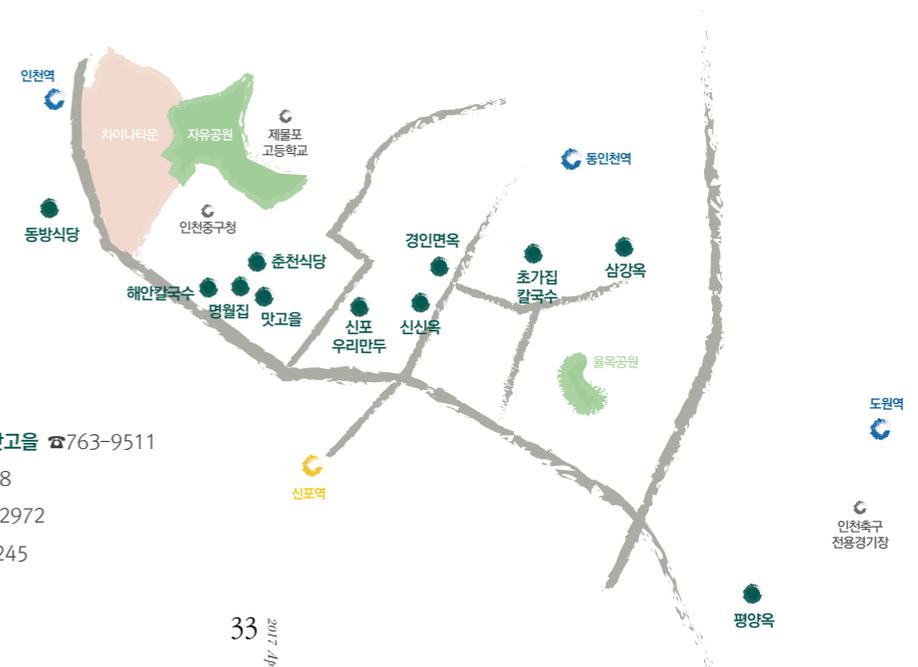
뽀얀 콩비지를 쌀밥 위에 올려놓고 간장을 살짝 떨어뜨려 쓱쓱 비벼 한술 뜨면 입 안 가득 고소하고 건강한 맛이 퍼진다. 콩비지찌개는 평안도에서 많이 먹던 향토 음식이다. 콩을 되직하게 갈아 만들어 되비지탕이라고도 하는데, 이복식 시어머니 손맛을 이어받은 며느리가 매일 두부와 비지를 만들어 음식을 파는 곳이 있다. “우리 시어머니가 1·4 후퇴 때 평양에서 인천으로 피란 오셨대요. 1961년도에 시아버지 성씨인 남양홍을 따서 ‘남양집’이라고 빈대떡과 돼지고기전을 파는 음식점을 하시다가 그 후엔 ‘중앙동 대표집’으로 상호를 바꿔서 장사하셨지요. ‘중앙동 대표집’하면 빈대떡으로 알아줄 만큼 꽤 유명했었어요. 두부도 직접 만들어 파셨는데,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의 두부 솜씨를 어깨너머로 배워 지금의 ‘맛고을’을 운영하게 됐다는 이옥순(62)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그날 음식에 사용할 두부 만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콩을 8시간 정도 불린 후, 곱게 갈아요. 돼지 등뼈를 2시간 고아서 간 콩과 묵은지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약간 해요.” 곱게 간 콩으로 만든 고소한 되비지찌개는 시어머니의 옛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갈하고 맛깔나는 찬거리와 잘 지어진 쌀밥, 든든하고 속이 편안한 식사에는 대를 잇는 수고로움과 한결같은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하다.



- 📍 중구 신포로23번길 33-2
- ☎ 763-9511
- 🕒 오전 10시~오후 9시(1,2,4째 주 일요일은 휴무)
- 📄 되비지백반 7천 원, 순두부백반 7천 원, 생두부 1만 원, 두부김치 1만5천 원
- 🍽 점심에는 찌개 종류가, 저녁에는 두부김치와 두부조림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매일 음식에 사용할 두부를 만들지만, 따로 팔지 않는다.

개항 이후 가장 먼저 발전되어 당대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던 중구. 그래서 중구에는 트렌드나 프랜차이즈 식으로 반짝 생겨나는 식당보다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맛을 고수해오고 있는 맛집들이 숨어있다.



- 동방식당 ☎762-2269 | 신신옥 ☎766-0303
- 춘천식당 ☎772-0946 | 해안칼국수 ☎766-0706 | 맛고을 ☎763-9511
- 명월집(백반) ☎773-7890 | 신포우리만두 ☎772-4958
- 삼강옥(설렁탕) ☎772-7874 | 평양옥(해장국) ☎882-2972
- 경인면옥(냉면) ☎762-5770 | 초가집칼국수 ☎773-5245

우리 집, 미니 발전소

지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집안 곳곳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게 하자.
시의 지원으로 부담 없이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삶에 동참할 수도 있다.
'작지만 큰' 햇빛이 주는 혜택이 더없이 반갑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 류창현 포토디렉터



태양광, 전기료 폭탄의 해결사

'쓸 것이냐, 아낄 것이냐' 한 편이라도 더 가정 살림을 알뜰살뜰 꾸릴 방법을 찾는다면, 소형 태양광에 주목하자. 태양광 발전기는 햇빛을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특한 존재.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를 플러그로 콘센트에 연결해 간편하게 사용하는 친환경 전기 생산 방식이다. 전력 생산량과 누적량도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 예산 2억 2천만 원을 투입,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50부터 520W까지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의 지원을 받아 우리 집에도 부담 없이 태양에너지를 끌어들이 보자.

전재범 시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아파트 및 주택은 물론 도시 곳곳에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 보급해 친환경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말했다.

10만 원이면, 내 집에 발전기를

우리 시와 구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200~520W짜리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6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시의 지원을 받으면 설치비의 60%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단지, 동일한 용량으로 10가구 이상 단체로 신청하면 추가로 10%가 지원되고, 여기에 해당 구의 지원이 더해지면 최대 90%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복(45, 연수구) 씨는 시의 지원으로 햇빛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260W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시로부터 보조금 51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전기료가 크게 절약됐다. 설비를 설치하기 전엔 월평균 전기 요금이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현재는 4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료를 절약하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계약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

그렇다면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이 복잡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다. 신청자가 시공 업체를 선택하면, 이후 계약부터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인천에 있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 베란다나 단독주택 옥상 중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또 설비가 태양광 모듈, 거치대, 소형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등으로 간단하게 구성돼 있어, 집을 옮겨도 쉽게 해체하고 재설치할 수 있다. 설치 후 5년간 무상 수리도 가능하다.

300W짜리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조량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한 달 평균 전기 33kW를 만들어 낸다. 이는 보통 대형 김치냉장고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한 달 전기료를 7천 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작지만 큰' 햇빛이 주는 혜택이 더없이 반갑다.



전력 생산량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장치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지원 받은 시민 김영복(좌)씨와 대행업체 ㈜제이에너지에너지 직원(우)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체크 리스트



- ☑ **우리 집 방향은?** 집이 남향을 끼고 있어야 한다. 정남향이 가장 좋으며 동남향과 남서향도 괜찮다. 햇빛이 하루 4시간 이상 들어와야 효과가 있다.
- ☑ **전기료, 얼마나 절약되나?** 소형 태양광 모듈 300W 한 장을 설치하면, 한 달에 33k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가구당 월 평균 7천 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 ☑ **지원 자격은?** 햇빛이 잘 드는 인천 내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 ☑ **지원 절차는?** 우리 시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하면, 신청서 접수부터 보조금 지원 등 행정 절차를 업체에서 모두 대행해 준다. '2017년도 소형 태양광 지원 사업' 시공 업체는 ㈜제이에너지(070-4713-0679), ㈜미림에너지(577-5292), 중앙에너지(010-3326-5870)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웹사이트(www.incheon.go.kr) 행정 →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에너지정책과(440-4352)로 문의한다.

이제는 낮선 이름, 전도관

드론 촬영 / 홍승훈 자유사진가
글·사진 / 유동현 본지 편집장



송도국제도시가 들어 서기 전 인천은 ‘저층’ 도시였다. 구월동 씨티은행 경인본부(옛 경기은행 본점)를 제외하곤 20층 넘는 빌딩이 없었다. 산(山) 외에는 시야를 막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송의동 전도관은 예외였다. 언덕 위에 길게 놓인 전도관은 비록 3층짜리였지만 인천 시민에게 ‘웅장한’ 건축물로 기억된다. 신흥 종교의 신비감과 상대적으로 낯작 었드린 주변 가옥 때문에 어느 건축물보다 크게 다가왔다. 실제로 인천 앞바다 섬에서 항구로 들어올 때, 지금은 사라진 선인체육관과 더불어 전도관의 자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만큼 전도관은 한 시대 인천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

전도관이 들어앉은 ‘송의동 109번지’는 드세고 거칠었던 동네로 유명했다. 바로 옆의 쇠뿔고개, 황골 등 이름만큼이나 터프한 땅을 닦았다는 설과 산등성이에 슬단지를 건 피란민들의 비탈지고 거친 삶 때문이라는 설이 맞는다. 이 때문에 창영동, 송림동 등 아랫동네 아이들은 그곳에 함부로 오르지 못했고 일부러 빙 둘러 갈 때도 지레 오금이 저렸다.



- 도원역
- 축구전용경기장
- (옛)전도관
- 송의철교
- 송의평화시장
- 목공예마을
- 경인철도



민둥산이었지만 조망 하나는 조선 팔도에 이만한 데가 없었다. 1897년경 당시 주한미국공사였던 알렌이 쇠뿔고개 정상에 여름 별장 용도로 2층 벽돌 건물을 지었다. 반구형의 돌을 깔은 별장이었다. 창문을 열면 인천 앞바다 섬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이어 바다에서 밀려 온 신선한 바람이 실내에 가득했다. 게다가 알렌의 별장은 '초역세권'이었다. 그는 경인선 부설권을 판 미국인 모오스의 '빔' 역할을 했다. 그 댓가로 1899년 개통한 경인선 노선이 별장 아래로

지나게끔 '특혜' 설계됐다. 언덕 아래에 우각리역이 들어섰다. 오로지 알렌 한 사람만을 위한 역이었다. 그가 타고내리지 않으면 기차는 정차하지 않았다. 물론 역사(驛舍)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지금의 진로아파트 아래 부근이다. 이러저런 이유 때문인지 경인철도 1차 기공식은 그의 별장 아래 쇠뿔고개 부근에서 거행됐다.



알렌 이후 그곳의 주인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1927년에는 이화여전 출신 이순희 남매가 그곳에 흔히들 '개미학원'이라고 불렀던 계명학원을 세웠다. 광복 직후에는 서울의 한 대학 분교가 개교하기도 했다.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공사 집' '선교사 집'으로 불리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1957년 10월 전도관을 세웠다. 한동안 '전도관'은 건물 이름이자 종교 단체명으로 불렸고, 나아가 동네 이름으로 통용되기도 했다. '전도관' 건물 자체가 아이돌(우상)인 듯했다. 납작 엷드린 수많은 집들은 전도관을 가운데 두고 숭배하듯 돌고 돌고 또 돌았다. 이제 인천 사람들은 물론 지리(지명)에 밝다는 택시 기사들에게도 낯선 이름이 됐다.



전도관 아래 별관에 거대한 '비행접시' UFO 한 대가 착륙했다. 2012년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이 들어섰다. 원래 이 자리에는 인천 시민이 '그라운동장'이라고 불렀던 인천공설운동장이 있었다. 1934년 건립된 공설운동장은 세 차례 전국체전과 한 차례 소년체전 등 스포츠는 물론 경축, 환영, 규탄 등 각종 대중 집회와 행사 등이 열렸던 장소로 시민의 애환이 담긴 공간이다. 현재 이곳은 인천 연고 프로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이다.

아이 키우기, 인천시가 도와드립니다!

글 /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아이 낳고 기르기.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출산과 육아 걱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보육 정책은 없을까? 올해 우리 시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 실시한다. 부모와 아이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취학 전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정책과 보육 정책을 살펴봤다.

♥ 아이를 낳았는데,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우리 시는 올해부터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I-Mom 출산 축하 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출산한 모든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출산 용품 교환권 또는 출산 용품(출산 용품 꾸러미, 수동 흔들 침대 세트, 보행기 세트 중 택일)을 택배 발송한다. 출생아의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쌍생아는 각각 지원된다. 이 외에도 'I-Mom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사업'과 별도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1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440-3418



📖 경제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힘든데, 방법이 없을까?

우리 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과 위생 관리, 모유 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녀 수에 따라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 출산 시 2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3급), 미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 출산 가정은 소득 기준 100% 이하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440-2754



👨👩 아이를 기다리는데,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우리 시는 올해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한다. 체외 수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7회 회당 30만 원~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인공 수정도 회당 20~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 신청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며,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일 경우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1회 때만 제출)를 함께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440-2753

👨👩 육아 고민도 해결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땐?

육아에 대한 궁금증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컨설팅, 교직원 상담, 교육 등의 어린이집 지원 관리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부모 상담 등의 가정 양육을 지원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부모님을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간제 프로그램과 부모가 양육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부모 교육 및 전문가 상담은 유용하다. 이 외에도 가족이 단체로 참여해 유대감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440-3412

*육아종합지원센터
남구 ☎884-0756, 연수구 ☎715-8262, 부평구 ☎1577-0756,
361-8653-4, 계양구 ☎556-5712-4, 서구 ☎568-7234

🏠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보육 조건이 좋은 어린이집은 없을까?

이럴 땐 '인천형 어린이집'을 이용해보자. '인천형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 1명당 아동 수 비율을 낮춘 것으로, 만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만 1세반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여 운영된다. 시는 지난해 8월 인천형 어린이집 10곳을 선정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시범 운영한바 있으며, 2018년까지 인천형 어린이집을 최대 50곳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올해 인천 지역에서 공공 성격을 띠는 어린이집은 3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440-2892

🧩 아이를 위한 장난감, 무료로 빌릴 수 없을까?

우리 시가 2008년부터 영유아 보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 중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이용해보자. 이곳에서는 영유아의 두뇌 발달에 좋은 장난감, 책 등을 무료로 빌려줘 양육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인천 시에는 15개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있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인천 시민과 인천 소재 직장인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매월 4차례 회원 당 7개 품목(장난감 2개, 도서 3권, 영상 자료 2점)까지 빌릴 수 있고, 사용하고 반납한 장난감은 소독과 세척, 그리고 건조 과정을 거친 뒤 다시 대여한다. 대여 기간은 1회 기준 14일이며, 가입비는 1만 원이다. 홈페이지(dodamtoys.or.kr) 참조.

문의: 시 보육정책과 ☎440-3413

1970년 인천 사람 승란 씨의 결혼식 이야기

50년 넘게 남구 용현2동에서만 살아온 김승란 씨(69세). 그녀는 지난해와 올해 자신의 결혼과 관련된 자료 20여 점을 시립박물관에 기증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심스레 자료를 건네주던 승란 씨에게 이 자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아닐까?

글 / 배성수 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부장
사진 / 시립박물관



▲ 승란 씨 부부의 결혼사진



▲ 2015년 승란 씨 부부의 제주도 여행 사진

김승란 씨는 1949년 3월 서울 중구에서 태어났다. 아홉 살이 되던 해 부모님을 따라 인천으로 이사 온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용현2동에 있던 대성목재에 입사했고, 그곳에서 평생의 반려자 정복진(74) 씨를 만났다. 중매결혼이 대부분이었을 시절, 두 사람은 1년 넘는 연애 끝에 1970년 1월 약혼식을 올렸다.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탓이었던지, 결혼에 앞서 약혼식을 치르는 모습은 당시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승란 씨 부부는 인천의 여느 신혼부부처럼 배다리 중앙시장에서 혼수를 준비하고, 짜리재에서 예물과 예복을 맞추었다. 결혼식을 앞 둔 어느 날 밤, 승란 씨의 예물과 한복, 사주단자가 담긴 함은 신랑 친구의 등에 얹혀 용현동

신부 집으로 들어왔다. 그 시절 여행 가방은 무거운 나무함을 대신하기 시작했고, 신혼여행의 짐을 담은 용도로도 재활용 되었다.

승란 씨 부부는 같은 해 5월 10일 지금 송의동 축구경기장 건너편 광해 리드빌 자리에 있던 동원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인천 사람들 대부분은 짜리재 신신예식장이나 용동 마루턱 중앙예식장과 원양예식장에서 평생 가약을 맺었지만, 승란 씨처럼 남구 일대에 거주하던 이들은 동원예식장과 장안예식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요즘 결혼식에는 비디오 촬영이 필수 코스이듯, 1970년대 예식장에서도 결혼식 과정을 녹음하여 릴 테이프나 레코드판으로 만들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예식장에



▲ 승란 씨가 결혼식을 올린 동원예식장 홍보용 성냥갑. 1970년대 동원예식장 홍보용 성냥갑. 성냥갑에 새긴 '독남의 전당'이라는 문구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남아선호 사상을 짐작할 수 있다.

▼ 청첩장
승란 씨 부부의 주례는 도화강리교회 고용봉 담임목사가 맡았다. 청첩장에는 지금과 달리 신랑 신부의 가까운 친지들이 '청첩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 결혼식 과정이 녹음된 릴 테이프. 당시에는 예식장에서 결혼식 과정을 녹음하여 릴 테이프나 레코드에 담아 신랑, 신부에게 기념으로 주었다.



▲ 승란 씨가 약혼식과 결혼식 때 받았던 예물들. 시계와 팔찌는 정복진 씨가 배다리 형제사에서 준비한 승란 씨의 결혼 예물이다. 승란 씨는 짜리재 중앙당에서 신랑 예물을 맞추었다. 붉은색 함은 사주단자를 담았던 함으로 뒷면과 전면에 '축복'이라는 한자가 새겨 있다.

마련된 식당이나 근처 중국 요릿집에서 피로연을 베풀었고, 하객에게는 떡이나 세제를 선물로 주었다.

당시 인천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신혼여행지는 속리산과 온양온천을 도는 코스였다. 그나마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주와 부산을 선택하기도 했다. 지방으로 떠나는 고속버스가 없던 시절,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송도유원지나 자유공원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는 신혼부부도 많았다. 승란 씨 부부는 결혼식이 끝난 후 온양온천을 예약해 두었으나, 짓곳은 친구들 때문에 기차 시간을 놓치고 결국 인천에서 첫날 밤을 보내야 했다. 사진 촬영을 핑계로 부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신부가 그러했듯 승란 씨는 결혼과 함께 직장

을 그만 두었고, 살림에 전념하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1970년 인천 사람 승란 씨의 결혼 이야기'는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면,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또 변한다.

승란 씨가 기증한 십수 점의 유물과 그에 얽힌 이야기로 박물관은 지금과 또 달랐던 1970년 인천의 결혼 문화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박물관에 기증되는 유물에는 그에 얽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인천 생활사의 한 장면이 될 그것을 끄집어내어 기록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일 또한 박물관의 사명 중 하나다.

04 APRIL CULTURE CALENDAR

<p>01</p> <p>빅마마 신연아의 <그대와 나> 콘서트 i-신포니에타 오후 6시 현장가 3만 원, 사전 예매 2만 5천 원 ☎ 834-1055</p> 	<p>02</p> <p>세상에 없던 감동! 뮤지컬 <영웅>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13만 원, R석 11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 1566-6551</p>	<p>07</p> <p>가족 뮤지컬 <빨간 모자와 늑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 원 ☎ 02-959-2830</p>	<p>09</p> <p>세상에 없던 감동! 뮤지컬 <영웅>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13만 원, R석 11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 1566-6551</p>	<p>15</p> <p>가족 뮤지컬 <빨간 모자와 늑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 원 ☎ 02-959-2830</p>
<p>16</p> <p>모두가 친구! 모두가 아이돌! 프리파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VIP석 5만 5천 원, R석 4만 5천 원 ☎ 1522-2342</p>	<p>19</p> <p>2017 커피콘서트II 이희문 컴퍼니 <거침없이 일씨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 5천 원 ☎ 1588-2341</p>	<p>20</p> <p>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2회 정기연주회 <찬란한 봄날을 애도하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p>	<p>22</p> <p>송도, 청라 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1만 원 ☎ 819-0505</p>	<p>23</p> <p>모두가 친구! 모두가 아이돌! 프리파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VIP석 5만 5천 원, R석 4만 5천 원 ☎ 1522-2342</p>
<p>25</p> <p>시크릿 쥬쥬 시즌2 <요정의 매직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1층) 4만 5천 원, S석(2층) 3만 5천 원 ☎ 1566-6551</p>	<p>26</p> <p>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가족음악회 <동방의 등불>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회원 초대 ☎ 553-0377</p>	<p>27</p> <p>창의적 예술체험을 위한 <교과서 예술 여행>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 30분~ 10시 50분 (28일까지) 전석 2만 원 ☎ 580-1135</p> 	<p>29</p> <p>뮤지컬 <안타>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R석 6만 원, S석 4만 원 ☎ 1588-2341</p>	<p>30</p> <p>뮤지컬 <안타>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R석 6만 원, S석 4만 원 ☎ 1588-2341</p>
<p>마티네콘서트 마실 <콜림트에서 베토벤을 듣다>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대공연장 오전 11시 사전 전화 예약 후 선착순 ☎ 460-0560</p> 	<p>4월 감성 데이트 콘서트 <봄날의 버스킹>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580-1166</p>	<p>볼 빨간 사춘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미추홀실 오후 7시 선착순 무료 접수 ☎ 899 - 1517</p>	<p>제2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1만 원 ☎ 873-7772</p>	<p>제37회 장애인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축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초대 ☎ 438-0420</p>

이달의展

- | | |
|-----------------------------------------------------|--------------------------------------------------------|
| 아트마켓 '우리 마을 아트장터'
3월 21일~4월 9일 /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 정의배 개인전
4월 18일~24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 최은례 개인전
3월 28일~4월 3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손경옥 개인전
4월 18일~24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 제 7회 그리미전
3월 28일~4월 3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책의도시 인천, 책가도를 만나.
4월 18일~27일 / 갤러리 나무 |
| 제9회 동구수채화 회원전
4월 4일~1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감성을 담은 멋스런 글씨
4월 18일~27일 / 갤러리 다솜 |
| 봄길 위에 서다
4월 4일~13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 2017년 한마당 축제
4월 25일~5월 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소 전시실 |
| 흑백의 숲
4월 4일~13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 인천구상작가 회원전
4월 25일~5월 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 제32회 인천일요사진회 회원전
4월 11일~17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사진작가 김찬영 사진전 '색채의 블루스'
4월 28일~5월 7일 / 서구문화회관 아트 갤러리 |
| 뜨란채 작가 회원전
4월 11일~17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어린이 체험전 '나무야 나무야'
4월 28일~6월 30일 /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
| 현장확인전
4월 12일~23일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 |

문화 포커스

신식 화폐 전시회 125년 전 동전 보러 오세요~

인천 중구 전동에는 신식화폐를 발행·유통시켰던 인천전환국이 있다. 인천전환국이 생긴 지 올해로 125년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은 모두 가운데가 막힌 신식 화폐로 이것은 전환국에서 시작한 것이다. 지금 내 주머니 속 동전과 125년 전 동전이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러 지금 바로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로 가보자! 체험기획전과 함께 인천개항박물관 4전시실과 근대건축전시관의 4전시실을 함께 관람하면 백년 전 은행에서 일어난 숨은 비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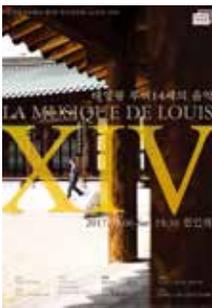


장소 : 인천개항박물관
기간 :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의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 ☎760-7864

인천콘서트챔버 정기연주회 '고전의 가치' 태양왕 루이14세의 음악

서양 고전음악 전문 연주단체 인천콘서트챔버가 원인재에서 정기연주회 '태양왕 루이14세의 음악'을 연다. 17, 18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 궁전에 울려 퍼진 음악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번 공연은, 챔버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편성과 플루트, 타악기, 쳄발로의 구성으로 연주한다.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던 궁정음악가 '뤼리'의 현정곡인 '밤의 발레' 발체곡들과 동시대 작곡가 '당글베르' '쿠프랭' '코렐리' 등의 곡을 60분 가량 연주한다. 특히 "뤼리"의 오페라 '아르미드' 중 '파사칼리아' 무곡을 현악기 편성의 원곡과 '당글베르' 편곡의 쳄발로 솔로 버전으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장소 : 원인재(연수구) 일시 : 5월 6일 오후 7시
전석 : 1만5천 원
문의 : 인천콘서트챔버 ☎821-1230, 010-4722-6006





NEWS BRIEF

인천과 중국, 변함없는 우정 확인하다



사드 갈등 속에 지난 3월 26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우리 시는 도시의 개성과 매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어우러진 인천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고 소개하며, 중국 황해권역과 동아시아를 역사와 문화적으로 연계하는 매개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이 불편한 관계로 접어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대응(반한·반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고 국민들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시는 세션에 앞서 중국 최초 자매도시인 톈진 시의 자오하이산 부시장을 만나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문의 : 시 중국협력담당관실 ☎458-7292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인천이 더 빨라진다



지난 3월 23일 송도국제도시에서 김포 신도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왕복 최대 6차로인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28km로, 시속 100km로 달리면 예전에 한 시간 이상 걸렸던 인천 신항동부터 김포 통진읍까지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도로 통행료는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승용차 기준 2천600원이다. 한편, 우리 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인천 남북 도로망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강화도 가는 길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시 도로과 ☎440-3772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에 힘 모은다



우리 시가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을 대상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을 인천에 건립하기 위한 100만명 서명 운동에 나섰다. 지난 3월 27일부터 시작한 서명 운동은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3개 시·도 도심에서의 거리 서명과 시 홈페이지에 서명 코너(www.incheon.go.kr)를 개설해 온라인 서명 운동으로 병행한다. 우리 시는 국비 1천315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국립해양박물관을 지을 계획이다.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려면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후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문의 : 시 항만과 ☎440-4847

외국인이 제안하고 인천이 응답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시정 아이디어를 우리 시에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시정 운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외국인 주민 시정 모니터링단’을 발족·운영한다. 시정 모니터링단은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 주민 2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1년간 시정 발전 아이디어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 등을 시에 제안하게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관련 부서에 알리고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보훈다문화봉사과 ☎440-2801

배관 교체로 더 따뜻하고 안전한 인천

우리 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970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타이머 콕 개폐기 설치 등 가스 시설 무료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시는 지난 1995년부터 국·시비를 투입해 저소득층 LP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1만946가구의 저소득층 가구에 시설 개선 사업을 마쳤다. 올해는 가스 타이머 콕 개폐기 무료 설치 사업을 추가로 확대 시행하고, 이와 함께 가스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440-4343

‘파이어 로보’ 타고 배우는 119 안전 체험



인천소방본부가 찾아가는 최신행 ‘119안전체험차량’을 도입했다. ‘119안전체험차량’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재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 체험, 화재 대피 체험, 완강기, 소화기 사용 체험 등 총 9가지의 다양한 재난 체험 시설을 갖추었다. 특히, 이 차량은 시민이 희망하는 곳에서 다양한 안전 교육을 실습과 체험 위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외관 디자인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EBS 애니메이션 ‘파이어 로보’ 소방 캐릭터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119안전체험교육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인천소방본부 ☎870-3118

송도 아메리칸타운, 공동주택 더 늘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아메리칸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규모를 줄이고 아파트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경제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비주거 시설)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 3월 27일 밝혔다. 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캠퍼스타운역 맞은편 공터에 고층 건물 3개동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초 외국인 주택 단지다. 1단계 사업은 2015년 6월 착공해 아파트 830단지 분양을 완료하는 등 2018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해 2021년 19월 준공 목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143

5월, 전국 최초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우리 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인천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장애인 학대 예방 같은 종합적 지원 활동을 벌인다. 시는 현재 5월 1일부터 센터를 운영할 민간 위탁 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 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440-2967

해외 시장 다변화 전략, 첫 타깃은 인도

우리 시가 해외 신 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올해 첫 MICE 마케팅 대상지로 12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선택했다.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3월 29일 인도 뉴델리 Taj Palace 호텔에서 ‘인도 MICE 로드쇼’를 개최했다. 현지 인도 여행 업계 및 기업체



NEWS BRIEF

등 바이어 2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우리 시는 MICE 홍보관을 운영하고,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해 '기업 회의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적극 홍보했다. 시는 최근 중국발 사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 다변화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마이스산업과 ☎440-1503

미추홀참물 홍보관, 산업 관광지로 뜬다



우리 시 미추홀참물 홍보관이 정부의 산업 관광지로 선정됐다. 국내 산업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부터 전국 산업 관광지를 전수 조사해 선정했다. '산업 관광'은 주로 기업체 생산 현장이나 홍보 시설을 비롯해 재래·전통산업, 과거 산업 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다. 남동정 수상업소에 위치한 미추홀참물 홍보관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관한 물 홍보관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체험 시설을 현대화했다.

문의: 시 상수도사업본부 ☎720-2661,

www.waterworksh.incheon.kr

전국 최초 지리 정보 활용 화학 물질 배출 업소 공개

우리 시가 최초로 지리 정보(GIS) 플랫폼을 활용해 화학 물질 배출 사업장을 공개한다. 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학 물질 배출 사업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지도 포털사이트(imap.incheon.

go.kr/)에 환경부의 '2014년 화학 물질 배출·이동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213개 화학 물질 배출 사업장을 공개했다. 이밖에도 지도 포털사이트에서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일어난 화학 사고 현황과 세계 대기질 정보도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화학 물질 안전 관리에 필요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시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조례·시행 규칙'을 제정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의: 시 환경정책과 ☎440-3543

어르신 바리스타가 있는 '스토어 카페지브라운' 개장



우리 시는 지난 3월 17일 송림체육관 지하1층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토어 카페지브라운'을 개장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카페지브라운 송림체육관점은 매점 운영과 동시에 어르신 바리스타가 직접 고령자 친화 기업의 고품질 원두를 사용, 커피 및 다양한 카페 메뉴를 만들어 체육관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스토어 카페지브라운'은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60세 이상 노인 18명이 3인 1조로 교대 운영하며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한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다.

문의: 시 노인정책과 ☎440-2813

IMAGE NEWS



하루아침에
젓.더.미가 되어 버린
소래포구 어시장

온 시민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래포구는
정상 영업 중!**

피해 입은 240여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550여 점포들은
오늘도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내요! 소래포구! 조속한 시설 복구 + 관광 활성화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운영
수인선 연계 기차 여행 관광 상품 개발
소래역사관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배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수산물 + 관광 = 역시 '소래'

이제, 소래포구에
희망의 불꽃이
솟아납니다





COUNCIL NEWS

청년정책연구회 출범 및 원탁회의 개최



인천시의원들이 인천의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을 청년의 삶과 꿈이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이 연구모임에는 이한구 의원을 비롯해 정창일, 박영애, 김종인, 홍정화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기업인, 청년 정당인, 청년 일반노조, 청년 대학생 등 각 분야별 청년 20여 명과 출범식 및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청년이 모여드는 인천 조성 방안, 특화된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지역 산업 연계 방안, 시민과 함께하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청년 공공 사회주택 보급·복지확대 방안, 청년 정책 추진제도와 체계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인천 청년정책연구회는 앞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는 물론, 국내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장단점 분석을 위한 비교시찰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AI 방역초소 등 비상시설 점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초지대교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초소와 강화군 비상 대피·급수 시설을 점검했다. 기획위 위원들은 이날 AI 방역 초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지난 1월 8일 설치된 방역 초소에서는 매일 12명이 12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기획위 위원들은 주민 대피 시설과 비상 급수 시설도 둘러봤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품 관리를 해줄 것도 주문했다. 한편, 불은면 두운리에 있는 주민 대피 시설은 지난해 6월 준공됐다. 수용 인원은 293명으로 대피소, 화장실, 기계실 등을 갖추고 있다. 평상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대 등 체육 시설도 마련돼 있다.

인천시의회 “폐교 매각 시 주민 의견 적극 경청해야”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문을 닫은 인천 지역 학교들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7명은 지난 3월 22일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폐교인 내리초교와 영흥초 선재분교를 방문해 관리 현황과 매각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에서 학생 수 감소로 지난 30년간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분교)가 32개에 달한다. 학교를 폐교하

려면 교육청이 학부모 의견 수렴과 찬반 투표,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시의회의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강화군에 있는 폐교인 강후초교, 길상초 선재분교 등 2곳을 방문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소래포구 화재 현장 및 외국인투자기업 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에 방문했다. 위원회는 피해 규모와 수습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상인을 위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피해가 없는 곳은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통해 조속히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지역 현안 사항과 관련된 곳은 직접 방문해 문제점과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주)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 및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인천시의회, 해사법원 유치에 한 목소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홍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가결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건교위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및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해양 관련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연간 지출되는 소송 관련 해외 유출 비용은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건교위는 우리나라에도 해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연간 해사 사건 600여 건 중 400~500여 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공항 및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해 인프라를 갖춘 인천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을 안건에 담았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지시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인천 문화회관과 국악회관, 은율탈춤전수관 및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24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남구 수봉산자락에 위치한 본 시설들은 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시민의 문화 향유 공간이다. 이날 황흥구 위원장

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해 신축한 은율탈춤전수관과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의 시설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 점검 차원의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외에도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영종 시사이드파크 시설점검과 23일 AG경기장 유희부지 관리 현황 파악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지 시찰을 실시했다.

※ <인천의회저널> 구독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440-6135-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봄, 봄, 봄을 따라왔어요

저어새

글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홍보팀



사진 출처 : © 국립생물자원관 김성현

저어새

학명 : *Platalea minor*

영명 : *Black-faced Spoonbill*

그렇게 기다리던 봄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린다. 지나간 추위가 지겹고, 새로운 학기와 시작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사랑대는 봄과 함께 어딘서 떠나고 싶어서일 것이다. 마치 ‘봄’ 같은 따스한 바람이 우리를 감싸줄 것 같은 곳, 봄에 어울리는 인천의 ‘그곳’은 어디일까? 송도국제도시는 어떨까? 송도를 계절에 비유한다면 ‘봄’이 어울릴 것 같다. 간척지를 메워 신도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송도는 다시 ‘봄’을 맞아 사람들의 ‘활기’라는 꽃을 피우고 있다.

송도는 기획된 도시만큼 맛과 멋, 여유를 두루 갖춘 곳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검색해보는 유명 방송을 탄 음식점이 곳곳에 있고, 한식, 일식, 양식, 퓨전 등 다양한 메뉴를 다채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 봄바람을 느끼며 여유롭게 즐기는 브런치, 굳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이국적인 디저트 등 무엇을 원하든 답은 이미 ‘송도’로 정해져 있을지 모른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걷는 센트럴파크, 도심 속에서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한옥 마을, 송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트라이볼’, 그리고 G-타워에서 내려다보는 화려한 야경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송도에서 봄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봄을 찾아 송도를 찾아오는 또 다른 손님, 저어새. 저어새는 몸이 흰색이며 주걱 모양의 길고 검은 부리가 특징이다. 주로 하구나 갯벌, 습지 등에서 먹이를 먹거나 휴식하고, 대부분이 우리나라 서해안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한다. 번식기에는 가슴에 노란 띠와 머리 장식깃이 생기고, 알은 보통 4~6개 낳는다. 번식을 마치는 9월경이면 다시 월동지인 대만과 홍콩, 중국 남부 등지로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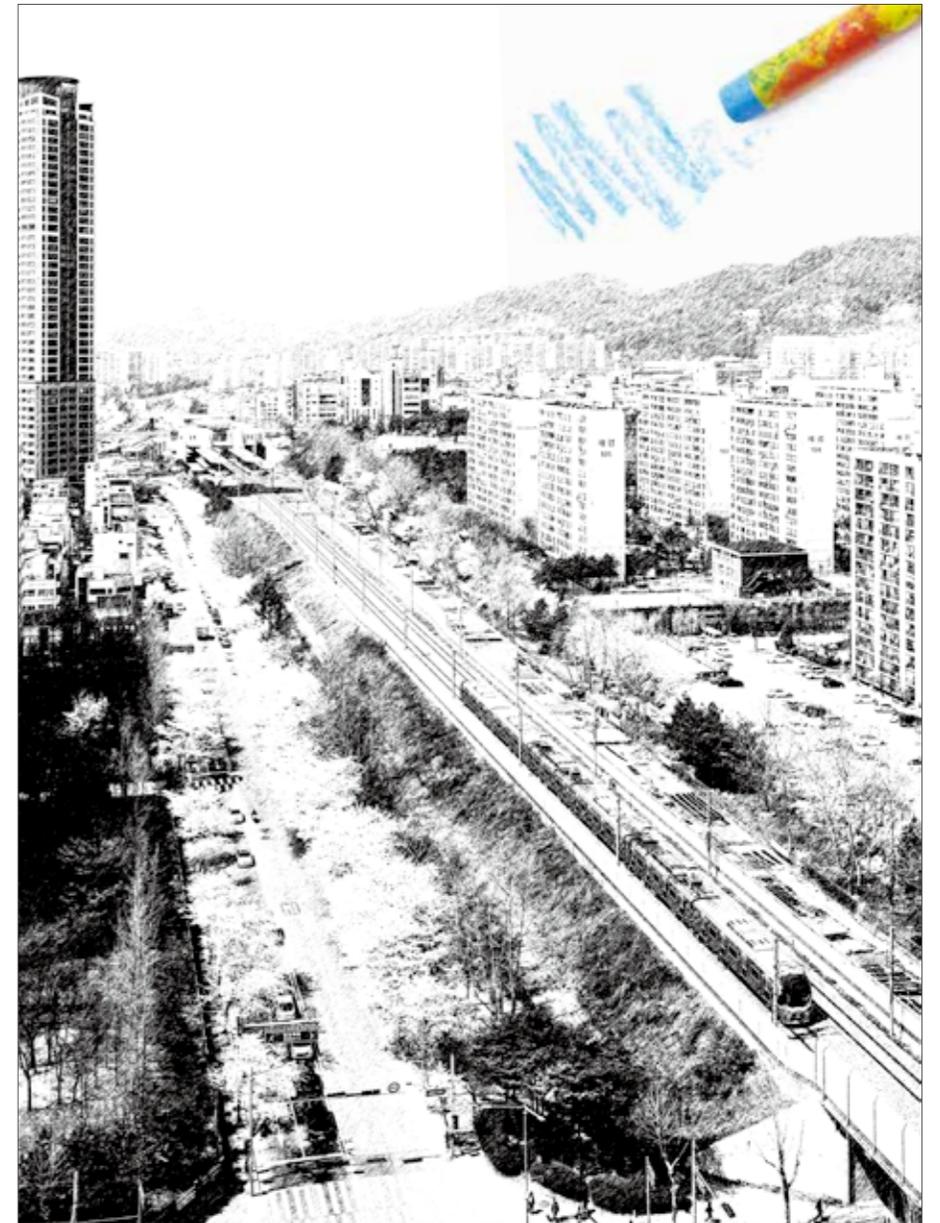
저어새는 봄이 오면 인천을 찾는다. 우리가 환경부 멸종 위기 I 급, 천연기념물 제205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Red List) 위기(EN)종으로 지정된 이 귀한 새를 인천에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송도 갯벌에 먹이 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봄, 아이들과 생태 학습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어새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송도 갯벌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고마운 저어새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무사히 알을 낳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 본다.

컬러링 인천

여러분 만의 빛깔로 인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세요!

연수구 연수동 벚꽃로,
만발한 벚꽃 길 옆으로
나란히 달리는
수인선 열차의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찾길 따라 철길 따라,
인천에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 여러분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나만의 멋진 컬러링 작품을

언제? 2017년 4월 20일까지

어떻게? 사진을 찍어 휴대폰 번호,
주소와 함께 보내면 끝!

• 추첨을 통해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선정자 개별 통보)

📷 찰칵 인천!

인천 사진을 공모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언제든 좋고, 스마트폰, DSLR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인천의 아름다움을 정성스레 담아낸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굿모닝인천>과 시민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진 이벤트. 여러분의 작품이 <굿모닝인천>에 실리고, 기분 좋은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제출 마감 : 2017년 4월 20일까지

• <굿모닝인천> 5월호 게재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컬러링북 & 사진 보내실 곳

-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40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우리 시는 지역 여성 인재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2040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300만 인천을 함께 이끌어 갈 20~40대 여성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분	기본 과정 (100명)	중간관리자 과정 (40명)
교육대상	20~40대 인천에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전문직 여성 ※ 관내 대학생, 대학원생 지원 가능	관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중간관리자(대리~부장) ※ 기관별 직제에 따라 상이함
교육기간	5~7월(10주간, 주2회) • 수요일 오후 6시 30분~8시 30분 • 토요일 오전 10시~12시	5월 11일(목)~12일(금) • 2일 14시간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과정 동시 진행
교육비	무료 (인천시 전액 지원)	
수료혜택	- 인하대학교 경영/정책/공학/교육대학원 입학시 특별장학금 지급 - 수료 후 인천시 신인(新仁)여성*으로 활동 자격 자동 부여 *신인(新仁)여성: 인천시 여성 인재 DB로 등록되어, 시 각종 위원회, 정책 홍보 및 모니터링단 등 활동	
교육기관	인하대학교	
모집안내	• 모집기간: 3월 27일(월)~4월 19일(수)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방문·메일·팩스접수)	

문의: 시 여성정책과 ☎440 - 2697,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860 - 8296

북스타트데이 운영 및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청라호수도서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스타트 꾸러미를 배부합니다.

[북스타트데이]

기간: 4월~11월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장소: 청라호수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대상: 출생 영아~35개월 이하 유아

내용: 아이 회원가입, 책 읽기 및 책놀이 활동 등
※ 부모교육특강: 6월, 10월(2회 예정)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일시: 4월부터 어린이자료실에서 배부(소진 시까지)

대상: 1단계 _ 출생 영아~18개월 유아 / 2단계 _ 생후 19~35개월 유아

내용: 북스타트 가방, 북스타트 프로그램 안내 책자, 그림책 2권 등

수령절차: 북스타트 꾸러미 대상자 중 생애 첫 도서관 회원 가입하기

문의: 청라호수도서관 어린이자료실 ☎563-804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016년 귀속 법인 소득)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문의: 시 세정담당관실 ☎440-1623,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 사항

- 변경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6.12.30.개정)”로 신고(안분신고서와 통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강화군·옹진군은 별도 신고·납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법인세 세율의 10%) 적용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가능
- *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안내 및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보건환경연구원 삼산농산물검사소는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기업형 슈퍼), 농협개설마트, 직거래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1월 ~ 12월

대상: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기업형 슈퍼 포함), 농협개설마트, 로컬푸드 및 생활협동조합 유통 농산물

검사건수: 400건

검사실적: 91건(3월 15일 기준)
(직거래매장 41건, 대형마트 30건, 농협개설마트 10건, 전통시장 10건)

검사결과: 적함

검사항목: 잔류농약 다중농약 다성분(292종)

문의: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440-5602~7

<all_ways_incheon> 공정무역 페스티벌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2017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정무역 페스티벌]

일시: 5월 20일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송도센트럴파크 UN광장

[공정무역 열린 공모전]

분야: 힙합(총 상금 200만 원)

UCC(총 상금 100만 원)

프로젝트(총 상금 100만 원)

주제: 공정무역도시 인천 만들기 또는 공정무역 관련 내용

내용: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참조

접수: 4월 3일(월)~4월 28일(금)까지, ifto@hanmail.net

문의: ☎422-6116 / 440-4962



‘생생 시정 바로알기’ 견학 신청 안내

우리는 인천 곳곳의 경제, 역사, 문화, 산업 시설 등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고 체험하는 ‘생생 시정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대상: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 단체, 학생 누구나
* 버스 이동으로 인하여 최소 15명 이상 신청을 요함

운영기간: 연중

견학장소: 인천 전역(경제자유구역, 역사, 문화, 산업시설 등 48개소)

운영일시: 화~금요일 (4시간 이내)

지원사항: 버스(45인승, 25인승) / 서포터즈(1명)

문의: 시 자치행정과 ☎440-2425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우리 동네 숲 탐험

연수문화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숲 탐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4월 15일(토) 오전 10시~12시
내용: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청량산 생태 환경 체험
대상: 7~10세 어린이
출발장소: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교회 뒷 공터
참가비: 1만 원 (1인, 1일)
신청방법: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
문의: 연수문화원 ☎821-6229, www.yeonsu.or.kr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지역 개발 기본 구상 수립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시민의 소리 운영

일반화를 통해 새롭게 변신하게 될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및 시민의 소리를 운영합니다.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일시: 3월 23일 ~ 6월 8일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센터
참석대상: 시민 누구나
문의: 인천발전연구원 ☎260-2716(http://giexpressway.idi.re.kr)

행정구역	주민센터	일시	행정구역	주민센터	일시
서구	가정1동	3.23.(목)	남구	주안5동	4.25.(화)
	가정2동	3.28.(화)		도화1동	5.11.(목)
	가정3동	3.30.(목)		주안1동	5.16.(화)
	석남1동	4. 4.(화)		주안2동	5.18.(목)
	석남2동	4. 6.(목)		용현1·4동	5.23.(화)
	석남3동	4.11.(화)		용현3동	5.25.(목)
	가좌1동	4.13.(목)		용현2동	5.30.(화)
	가좌3동	4.18.(화)		용현5동	6. 1.(목)
주안산단	4.20.(목)	도화2·3동	6. 8.(목)		

[시민의 소리]
기간: 3월 23일 ~ 6월 30일까지
방법: 전용홈페이지(http://giexpressway.idi.re.kr)
목적: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 시민아이디어 청취
문의: 인천발전연구원 ☎260-2716
홈페이지: http://giexpressway.idi.re.kr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 참가자 모집

우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시하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4월 역사문화 탐방 일정]
일시: 4월 22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탐방지역: 근대건축전시관, 자유공원, 제물포구락부 등
내용: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집필진이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직접 해설
참가비: 무료
준비물: 간편한 복장, 편한 신발, 모자 등

[참가자 모집]
대상: 초등생 이상 일반시민
모집인원: 각 회별 선착순 35명
모집방법: 인천시청 새소식 및 인천상록작전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 후 메일로 신청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4월 1일 9시부터 메일로 신청.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 인천상록작전기념관 (www.landing915.com)
문의전화: ☎832-0915

2017년 사랑의 그린PC 보급 신청안내 (중고PC 무료보급)

우리 시는 공공기관 등에서 기증받은 중고PC를 정비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 무료 보급합니다.

보급대수: 370대
보급사양: 펜티엄 Core2Duo(LCD모니터 포함)
신청기간: 4월 3일(월)~4월 11일(화) ※ 보급대수 접수완료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선착순 접수
대상선정: 보급대상자 5월중 선정(문자발송)
신청 및 제출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격: 주민등록지(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인
 - 개인 :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국가/상이유공자(1-7급),북한이탈주민
 - 단체 : 사회복지단체 등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오성식 사진전 돈대의 질곡 '彼岸'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 주요 피란처였던 강화도, 섬 전체가 천연요새이기도 하지만 특히 격전의 현장이었을 군사시설 돈대는 아픈 역사의 기억을 간직한 채 긴 세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돈대는 흙을 다져 평지를 만들고 옹벽을 쌓은 작은 성곽으로, 성곽 위에 올라 서면 탁 트인 공간의 넓은 시야가 확보되지만, 돈대의 안은 포근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이다. 그 평온한 아늑함은 어느 덧 오래전 빛바랜 기억을 더듬게 한다.

'피안'전은 지난 6년여 간 강화도의 돈대에 천착해 온 오성식의 사진을 총 결집한 전시이다. 질곡의 세월을 견뎌온 돈대의 흔적을 돌아보며 작가 자신을 찾아가는 근본적인 질문에 공감하고 작가가 찾은 피안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강화도 마니산에 위치한 '맘갤러리'에서 4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10-8888-7096



후애돈대

쿠바 코레아노를 위해



글 / 신은미 한국이민사박물관장

2016년 12월 어느 토요일, 칼바람이 제법 쌀쌀한 날이었다. 한국을 방문한 쿠바 한인 후손 6명이 시간을 내 우리 박물관을 찾았다.

까무잡잡한 피부, 깊고 짙은 눈매를 한 쿠바 청년들은 처음 느끼는 차가운 겨울 날씨 탓인지 잔뜩 몸을 움츠렸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전시실로 향했다. 초기 한인의 이민 역사를 차례로 살펴보다 드디어 쿠바 전시실 앞에 섰다. 쿠바 한인 사회를 이끌었던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진을 보면서 경직되었던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조심스럽던 입술에서 환호성이 일었다.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었던 할아버지의 나라, 막연한 그리움을 안고 막상 그곳에 왔지만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던 감정들이 해소되는 듯한 감격을 누리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였다. 1921년 멕시코에서 건너간 288명으로 시작된 쿠바 한인들의 흔적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쿠바 청년들을 통해 찾은 순간이었다.

1903년~1905년까지 이루어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05년 5월,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향하던 1천33명의 이민자들이 있었다. 연중 온화한 날씨와 아이들의 교육이 보장되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4년간 노동 계

약을 체결하고 떠났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유카탄 반도의 뜨거운 태양과 살을 찌르는 에네켄 가시였다. 1909년 에네켄 농장에서의 지옥 같은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멕시코 내란과 혁명으로 한인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1921년 멕시코 한인 280여명이 쿠바로 재이민을 가게 되었다. 이들이 쿠바 한인의 시작이다.

방문한 일행 중에는 쿠바 한인 1세대로 고국의 독립 운동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민족혼을 일깨우셨던 독립 운동가 임천택(1903-1985) 선생의 증손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한 TV 인터뷰에서 증조부의 삶처럼 본인도 쿠바의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쿠바 한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멕시코 이민은 한 차례에 불과하였고 쿠바로의 재이민도 제한적이었다. 1945년 쿠바 내정 변화, 1959년 쿠바 혁명 등으로 고국과 단절된 세월은 더 깊어졌고 그만큼 현지화 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한인회를 조직하며 고국을 그리워했던 선조들의 마음이 이민 4세로 접어든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 아메리카 대륙 한인 이민의 끝자락에 쿠바 한인이 있다. 쿠바의 코레아노들 또한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이 청년의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잊어라”

(Do your best and forget the rest)

- 메이저리그 통산 2,000승의 명장 월터 엘스턴 감독 -

메이저리그 통산 2,000승 이상을 올린 명장 월터 엘스턴 감독이 한 말이다. 말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벽에 부딪힐 때 조용히 되뇌어 보면 가끔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족하다.



시래기의 최후

글·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지난 김장 때 걸어 놓은 ‘양식’입니다. 집 주인이 떠나는 바람에 봄 식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잘 말리면 시래기 못 말리면 쓰레기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래기와 쓰레기는 한 곳 차이입니다.

중구 도원동 (모모산 골목)